



自己本分을 새

1979년의 절반(折半)을 보내면서 본인은 초창기(草創期)의 갖가지 고난(苦難)과 시련(試鍊)을 이겨내며 국기(國技) 태권도(跆拳道)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發展) 시키는데 힘이 되어온 여러분들의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인 정비(整備)를 마무리진 이제, 우리에게 보다 알찬 태권도의 세계화(世界化)를 향(向)한 전진(前進)과 결속(結束)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昨今)의 태권도계 풍토(風土)는 지난날의 업적(業績)만을 과시(誇示)하고 자만(自慢)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경종(警鐘)을 울려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利益)에만 급급한 나머지 대오(大悟)를 그르치는 일, 대의명분(大義名分)이네 양심(良心)이네 하며 응변(確辯)이면서도 실천(實踐)이 뒤따르지 않는 일 등은 태권도계 자체를 육되게할 뿐 아니라 국가사회(國家社會)발전에도 장애요소(障礙要素)가 되고 있음을 지적(指摘)코자 합니다.

우리 태권도인이 현시점에서 다짐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낡은 것, 옳지 못한 것, 부조리(不條理)를 다 제거(除去)하고 새로운 마음, 곧 새마음으로 자기의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마음으로 다 하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김 윤 용
대한 태권도 협회 회장

원래 태권도가 무도정신(武道精神)에 바탕을 둔 현대 스포츠라는 점에서 태권도 정신이야 말로 바로 우리민족의 행동윤리(行動倫理)인 충(忠), 효(孝), 예(豫)의 정신과 합치(合致)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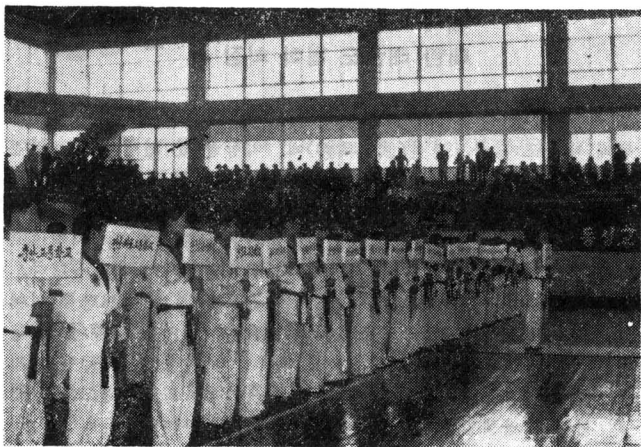
우리는 이같은 「새마음 정신」을 일상수양(日常修養)의 지침으로 삼고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에 정정당당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태권도 발전에 어느만큼 기여(寄與)하고 있으며 우리 조직사회(組織社會)에 어떠한 영향(影響)을 끼치고 있는가를 자문자답(自問自答) 할 때 대국적(大局的)인 견지(見地)에서 반성(反省)한다면 그것이 곧 새마음이요, 태권도로서 꽃필 이 나라의 운택함을 보장하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치게 될 난관(難關)에 대비(對備)해서 새마음정신으로 무장(武裝)하여 명량(明朗)하고 건전(健全)한 국가와 민족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결의(決意)로서 소기(所期)의 목표(目標)를 달성(達成)하는 데 한명의 낙오자(落伍者) 없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제14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

The 14th Presidential Flag Takwondo Championship



79년도 제14회 대통령하사기쟁탈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가 18일 국기원에서 개막됐다.

삼일동안 계속된 이대회의 개막식에 있어서선 세계태권도연맹총재인 김운용회장과 주한 이탈리아대사 마리오 크레마씨를 비롯 국회의원 홍성우씨도 참가하여 이 대회에 성원을 보냈다.

이번 대회엔 학생부 2백 25명의 선수와 일반부 1백 38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그 어느때보다 열띤 경기를 보였으며 경기에 앞서 김운용회장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협동정신이야말로 체육인의 참된 밑거름이요,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단체전의 의의를 되살려 마음껏 그 기량을 과시하길 바란다고 개회사를 했다. 또한 주한 이탈리아 대사 마리오 크레마씨는 능숙한 한국말로 태권도의 참된

정신과 기술에 대해 말하고 한국 태권도의 발전을 바란다고 했다.

전년도 우승팀인 동대문상고의 우승기반환에 이어 벌어진 경기는 관중석을 메운 학생과 일반의 응원과 선수들의 힘찬 기합소리로 대통령하사기쟁탈의 면모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둘째날 학생부 라이트급 1회전에서 인천체전의 김태우는 여수고등학교의 김태권의 얼굴을 오른발 내려찍기로 강타 다운을 뺏고 왼발앞 돌려차기로 관자놀이를 공격하여 스텐딩 다운을 뺏고 TKO승 함으로 8강에 진출했다.

그리고 국가대표선수인 동대문상고의 오일남 선수는 학생부 웰터급 1회전에서 천호상전의 김순길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판정승을 거두었는데, 뒤돌아차기로 얼굴과 가슴을 명중시켜 기량



<우승기 반환>

을 피시켰다.

일반부에 삼척선수단의 이양원이 웰터급에서 3분 15초만에 도산도장의 천호진을 KO로 누르고 준준결승에 진출 뒤 돌아 옆차기로 복부를 강타하여 통쾌한 KO승을 거두었다.

학생부에선 서울 동성고교와 작년대회의 우승 팀인 동대문상고, 그리고 서울체육고등학교가



결승진출의 선두를 달렸고 그 뒤를 남산공전 평생고등학교 전남체육고등학교가 바짝 따랐다.

일반부에 원호단 명지대학 동아대학 인천체육전문학교가 우위를 고수했다.

삼일계 결승전에선 불꽃튀는 열전이 벌어져 경기장내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된 가운데 우수한 선수들의 우수한 기술적역량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연 삼일의 경기는 무리한 사고없이 무난히 치뤄졌고 그 대회전적은 다음과 같다.

일 부 우 승 자 명 단

급	등 위	성	명	소	속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판	1	이	승	형	원 호 단	웰 터	1	박	중	일	유 도 대 학
	2	정	제	균	동 부 도 장		2	김	승	환	동 아 대 학
	3	이	종	우	인 천 체 전		3	이	중	철	명 지 대 학
	3						3	박	태	상	원 호 단
플라이	1	김	성	배	명 지 대	L-미들	1	권	진	용	원 호 단
	2	최	제	규	삼 칙 대 표		2	차	상	혁	한 국 체 대
	3	윤	준	천	한 국 체 대		3	진	용	복	인 천 체 전
	3	정	근	원	원 호 단		3	이	제	근	명 지 대 학
반 탐	1	손	태	환	명 지 대	미 들	1	정	찬	동 아 대	
	2	김	준	현	도 산 도 장		2	장	중	태	원 호 단
	3	황	용	수	성 균 관 대		3	이	석	정	한 국 사 회 사 업
	3	최	종	복	원 호 단		3	김	용	남	명 지 대
베 니	1	배	태	명	한 국 사 회 사 업	L-헤비	1	이	중	균	동 아 대 학
	2	김	형	주	유 도 대 학		2	이	규	천	학 국 사 회 사 업
	3	김	종	기	동 아 대 학		3	양	언	석	유 도 대 학
	3	박	치	순	인 천 체 전		3	강	성	용	원 호 단

급	등 위	성	명	소	속	급	등 위	성	명	소	속	
라이트	1	김	한	노	동 아 대 학	헤 비	1	강	용	구 원 호 단	헤 비	
	2	김	정	국	원 호 단		2	박	인	덕		동 아 대 학
	3	박	수	복	유 도 대 학		3	진	중	의		유 도 대 학
	3	이	평	우	한국체육대학		3	양	천	석		인 천 체 천

학생부 우수승자명단

급	등 위	성	명	소	속	급	등 위	성	명	소	속
핀	1	김	종	동	송 도 상 고	웰 터	1	문	원	재	동 성 고
	2	안	명	일	서 울 체 고		2	초	진	하	서 울 체 고
	3	이	진	우	동 대 문 상		3	오	일	남	동 대 문 상
	3	손	영	규	군 산 제 일 고		4	이	용	기	풍 생 고
플라이	1	한	홍	식	동 성 고	L-미들	1	박	재	육	성 동 상 전
	2	박	종	민	대 전 체 고		2	신	태	균	동 생 고
	3	이	성	호	송 도 상 고		3	정	근	형	인 천 체 고
	3	양	기	모	서 울 체 고		4	윤	한	돈	서 울 체 고
반 탐	1	박	기	성	대 성 고	미 들	1	이	강	식	대 전 체 고
	2	정	범	수	성 동 상 고		2	장	우	석	대 성 고
	3	홍	은	석	서 울 체 고		3	김	명	수	인 천 체 고
	3	강	명	선	남 산 공 전		3	최	명	섭	동 성 고
페 더	1	박	춘	식	천 호 상 전	L-헤비	1	심	원	정	성 동 상 전
	2	이	재	봉	성 동 상 전		2	강	승	우	풍 동 생 고
	3	박	영	수	남 산 공 전		3	김	동	환	대 전 체 고
	3	김	영	서	서 울 체 고		3	손	용	주	서 울 체 고
라이트	1	손	재	강	서 울 체 고	헤 비	1	천	세	형	대 전 체 고
	2	김	광	일	남 산 공 전		2	황	정	영	대 전 체 고
	3	조	병	혁	천 남 체 고		3	임	종	남	성 동 상 전
	3	조	이	희	동 대 문 상		3				

학생부 단체우승팀 명단

- 우 승 : 성동상업전수학교
- 준우승 : 대전체육고등학교
- 3위 : 동성고등학교
- 감투상 : 서울체육고등학교
- 장려상 : 인천체육고등학교

일반부 단체우승팀 명단

- 우 승 : 원호단
- 준우승 : 동아대학교
- 3위 : 명지대학교
- 감투상 : 인천체육전문대학
- 장려상 : 삼척군대표팀

제 8 회 전국소년체전 태권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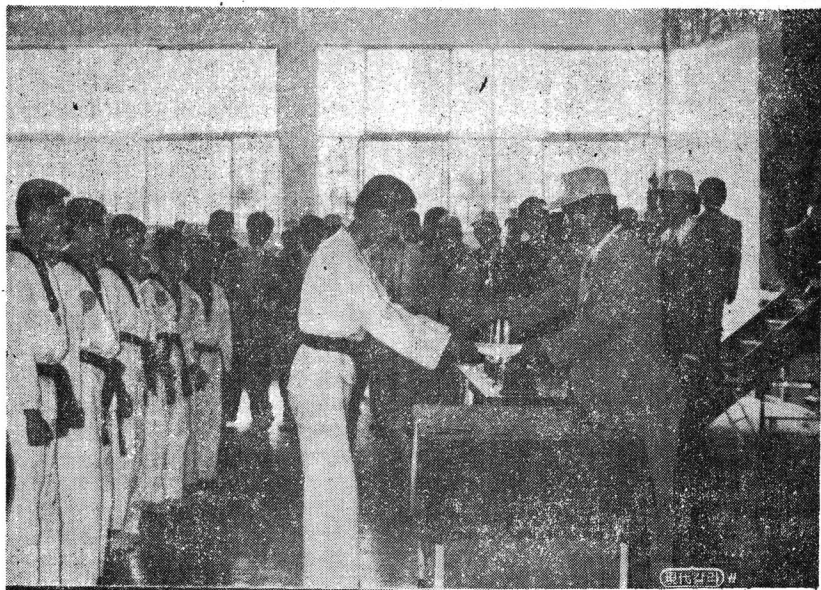


1979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충북 고등학교 강당에서 제 8 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소년체전에 참가키 위해 물려든 선수단들을 위해 거리를 메운 환영프랫카드와 정연하게 단장된 청주시내의 모습은 79년 어린이의 해를 맞이한 체육제전의 화려함이 그대로 한 눈에 보여졌다.

선수들의 민박, 대회장마다 수놓여지는 우정의 환대등은 이번 소년체전에 이기고 지는 승부욕을 초월하여 참다운 체육정신을 기리는 화기애합이라 할 수 있었다.

태권도대회는 체전개막 이튿날인 5월 31일 충북고등학교의 강당에서 막을 열었다. 각 도와 시부 그리고 재미, 제일동포팀이 출전한 13팀의



도명	구분	점 수	등 위	비 고
서울시		60	3	
부산시		43.5	6	
경기도			8	
강원도		41.5	10	
충청남도		34.5	2	
충청북도		60.5	1	
전라남도		76	4	
전라북도		56.5	5	
경상남도		53.5	11	
경상북도		32	9	
제주도		40	6	
제일동포				
재미동포		23.5	12	

92명 선수가 사각의 마루판에서 힘과 기를 겨루었다.

이번 대회의 호프로 등장한 선수는 재미동포인 김봉겸. 재미동포의 체진참가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낸 미들급의 김봉겸(15·세리토스 중학)군은 6년전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로스앤젤레스에 머문 후 태권도를 계속한 결과 이날의 영광을 차지했던 것. 기본기가 완벽하고 눈이 빠르며 앞차기가 특기인 그는 고국에 온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연 2틀간의 경기는 부상자나 잠음없이 무난히 치루어졌으며 대회 전적은 다음과 같다.

3군 사령관에게 감사패



김 운용 한국태권도협회 회장은 79년 3월 10일 3군 사령관 이 건영장군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육군 태권도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이건영장군은 앞으로 태권도가 호국국방에 힘입는 맥이 되도록 힘을 것이라곤 말하며 군내에서의 태권도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운용회장이 수여한 감사패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평소 국기 태권도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컸음은 물론 특히 육군태권도 저변확대에 크게 공헌하셨기 이에 심심한 감사패를 드리며 그 고마움의 뜻을 담습니다.」

이에 김운용회장은 이건영중장의 노고에 격려하여 국민 스스로 지키는 국가 국민 스스로 아끼는 국가 국민 스스로 발전시키는 국가관이 설 때 우리 태권도도 더욱 훌륭히 성장하리라고 말했다.

제 4 회 세계 태권도선수권 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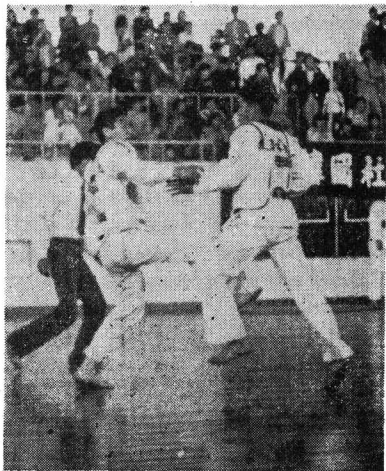
Selection tournament of Korea Champions for the
4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

올 11월에 서독의 슈트트가르트에서 개최될 제 4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대표선수 선발대회 제 1차, 2차 최종전이 1979년 5월 24일, 6월 4일, 6월 9일. 계속해서 국기원에서 열렸다. 1차 선발전과 2차선발전에서 1위 2위로 입상한 선수들을 가려 리그전으로 최종전을 치뤄 다시 1위 2위의 선수를 뽑았으며 여기에 입상한 선수들은 국기원에서 합동훈련을 하여 중 주국 태권도의 기강을 굳힌다.

5월 24일에 개막되었던 1차전에선 10체급의 20명 선수를 선발했으며, 6월 4일 2차전에서 20명, 모두 40명의 선수들이 다시 힘을 겨루는 최종전에선 불뽕은 열전이 벌어졌다.

이대회에 1위 입상자들은 세계대회에 파견될 것이며 2위 입상자들은 대만국제친선대회에 파견될 예정이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입 상 자 명 단

구 분	1 위 자		2 위 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핀 급	이 승 형	원호관리단	이 진 우	동대문상고
플 라이 급	양 기 모	서울체육고등학교	한 홍 식	동성고교
벨 텀 급	김 종 기	동아대학교	박 기 성	대성고교
페 더 급	임 대 택	원호관리단	김 영 훈	동성고교
라 이 트 급	박 오 성	한국체육대학	김 정 국	원호관리단
웰 터 급	김 무 천	해군대표	김 금 선	해군대표
L-미들급	박 정 호	경희체육관	이 병 두	인천체육대학
미 들 급	김 상 천	성균관대학교	주 상 현	신촌도장
L-헤비급	정 찬 칸	동국대학교	박 종 만	서울체육고등학교
헤 비 급	진 중 의	유도대학	강 용 구	원호관리단

제 6회 한국중고연맹회장기 쟁탈 태권도 선수권 대회

1979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국기원에서 제 6회 한국 중고등학교연맹회장기쟁탈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출전한 867명의 선수와 20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된 개회식에서 김한선 회장은 개회사가운데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정통무술로서 오늘여 국기로 성장해 왔으니 우리는 신라 삼국을 통일한 호국화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르자」고 말했다. 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이며 대한 태권도협회 회장인 김운용총재의 치사와 초대 회장이었던 이인근 교문의 축사가 더욱 대회의 개막을 빛내주었다.

중고등학교생선수들의 열전인 이 대회는 회수를 더해갈수록 그 팀수가 많아져 이번 대회에는 중등부에서 서울 19, 지방 19팀 선수 292명, 여자고등 5부팀에 참가 선수인원 80명, 남자고등부 서울 21 지방 25팀에서 495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여 페어플레이의 아마추어스포츠맨 습을 발휘하였다.



개회사를 하는 김한선 중고 연맹회장

연 4일동안의 무리없는 게임진행과 아울러 관중석을 메우고 격려와 환호로 응원을 보내는 관중들의 참여로 한층 고조된 분위기였다.

이번 대회의 특이한 점은 선수들의 기량이 보편적으로 평준화되었다는 것인데, 지방팀수의 급증과 서울 출전팀의 증가로 보아 태권도 저변확대가 점차 안정된 규모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이라 하겠다.

이 대회의 성황을 장식했던 김회장의 배려와 참가급이 모든 중고등학교 태권도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운영방침이 빼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대회 첫날은 국기원에서 전 참가팀의 인솔교사와 심판위원 중고 연맹임원이 한자리에 모여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과회가 있었고 대회진행중에 필요한 개개인의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회가 끝나는 날 또한 함께 모여 반성의 기회를 갖었다.

앞으로의 대회에 있어서는 참가선수와 심판위원 및 임원진들의 부장통일로 경기장내의 분위기를 정돈하고 가능한 지방에서도 경기가 이뤄지도록 하여 나아가서 경기력향상을 위해 국선수들과의 친선교류에 힘쓰겠다는 내용등이었다.

대회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회 전적

○단체전적

중등부

우 승 : 한영중학교

준우승 : 예산중학교

3 위 : 청량중학교

장려상 : 휘경중학교

최우수선수상 : 장영삼(한영중학교)

최우수선수상 : 현완속(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

여자고등부

남자고등부

우 승 : 청산여자상업전수학교

우 승 : 서울체육고등학교

준우승 : 인천체육고등학교

준우승 : 성동상업전수학교

3 위 : 은평여자고등학교

3 위 : 동대문상업고등학교

장려상 : 성암고등학교

장려상 : 송도상업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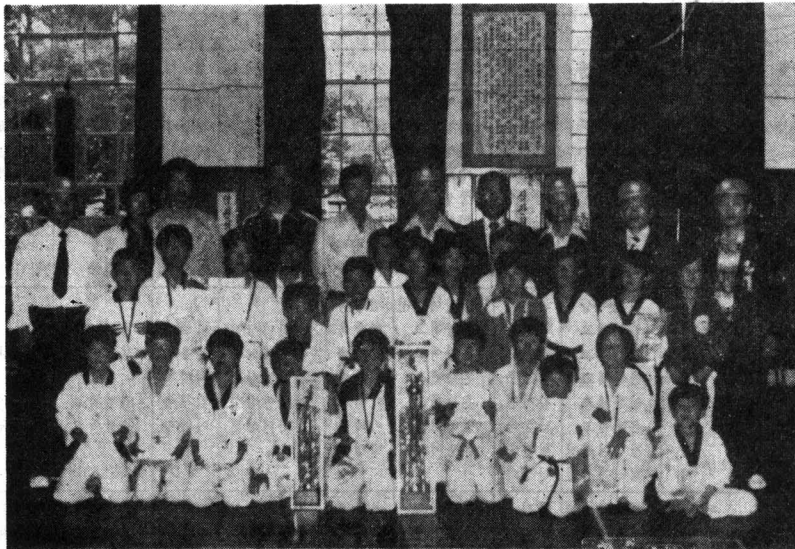
최우수선수상 : 양기묘(서울체육고등학교)

0개인 전적

부별	등위 체급	1 위		2 위		3 위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중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청량중	인해진	한영중	오영주	가덕중	지용석	반송중	이명환
		한영중	임경순	계천동중	윤정환	예산중	정근봉	안경배	
여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중화중	김위철	한영중	신상돈	영동포중	이철수	공합중	남창진
		한영중	송종서	수원북중	정상용	동성중	남상국	가서중	김종택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예산중	김현일	통생중	최기상	완산중	한서만	예산중	김현일
		한영중	장영삼	한영중	이강준	형서중	허헌배	공향중	장관진
여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동대문중	한영중	한영중	김상태	대건대성	김필희	공성중	고광식
		육원중	나일환	통생중	배 준	수원북중	정왕호	통생중	함남득
여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청산여상전	허인자	청산여상전	김경숙	청산여상전	이금자	청산여상전	7역관
		인천체고	최선자	은평여고	한순옥	은평여고	정용녀	박미자	인천체고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인천체고	황요안나	은평여고	양인옥	성암여상	임재숙	은평여고	주영숙
		인천체고	김경주	은평여고	김순화	청산여상전	이미향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은평여고	김지연	청산여상전	이윤희	청산여상전	이혜정	박경숙	
		청산여상전	현완속	은평여고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동대문상고	이지우	전남체고	육정열	동성고	이차열	인천체고	김윤한
		서울체고	양기묘	동성고	백축기	성동상전	장범수	영동포고	정용원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서울체고	홍은석	동대문상고	이강열	동대문상고	구본경	성동상전	윤기성
		통생고	이경배	전북체고	최재축	청수기공	임광인	협성상고	유호상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서울체고	김영식	중성고	장진태	전체고	오일섭	서울체고	방만규
		동대문상고	오일남	성동상전	노승구	남산공전	김윤호	단경고	이정구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전남체고	정국현	충암고	오서광	대진체고	김기홍	인천체고	정근량
		전남체고	김명근	인천체고	박병호	대성고	장우석	충암고	김재만
남 자 고 등 부	핀 판 래 트 휠 터 들 미 들 비	성동상전	심원정	협성상고	최재용	대진체고	김동환	협성상고	한주호
		서울체고	윤문희	성동상전	임종남	전북체고	최호성	인천체고	최종남

제 1회 진해시 태권도지회 회장컵 쟁탈 단체전 및 개인전을 마치고

조 회 삼



태권도가 통합된 후 각 시·군 체육회 산하에 태권도 지회를 결성해야 하는 많은 문제와 애로가 있는 가운데 이곳 경상남도 내 6개시 21개군 중 진해시태권도 지회가 타시군보다 지회 결성의 난관을 극복하고 가장 먼저 시지회 정관규약을 제정하여 체육회와 도협회 승인을 받아, 회장 백한중씨의 취임식을 갖기까지 몇차례의 회의로 태권도의 고질인 계열을 찾는 병폐속에서 성공리에 지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취임식장에 진해시 체육회장 및 각 기관장의 참석하에 위촉장 전달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협동과 발전을 위한 간단한 카테일 파티로 지회결성을 축하했다.

진해시 태권도 지회가 결성 발족하므로 그 첫 사업인 제 1회 국민학교대항 단체전 및 개인전 태권도 대회를 지난 79년 5월 6일 9:00시에 진해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해군군악대 주악으로 막을 열었다. 단체 11팀 개인전 181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부회장(김성기)의 개회 선언에이은 백한중 회장의 대회사, 김병노(대의환영사 진해체육회장의 격려사, 교육장, 청남협원)씨의 회장의 격려사 그리고 오종민(진해도련 6년) 선수의 선수대표 선언을 끝으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지방 시·군 지회 조직후 국민학교대회가 처음인만큼 관중들의 성원과 해군 군악대의 주악

에 맞춘 시가행진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초점이 되었다. 이번대회가 남김 교훈이라면 일부 지도자들의 지나친 승부욕에 의해 제기된 몇가지 문제점을 들수있겠고 이의 점진적인 타개로 태권도 발전에 좋은 참고재료가 될 것 같다.

또한 처음 출전하는 선수가 자기 코트를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선수와 경기를 한선수가 있기도 했으며 어느 지도자(사범)는 단체전에서 우승한 팀 선수중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여 최우수 선수상을 수여하는 것을 2~3위 팀 선수중 KO시킨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게 최우수 선수상을 주어야 한다는 항의가 있기도 해 지도

자들의 경기 룰에 관한 확실한 인식도 필요한 것 같다. 대회가 끝난후 지난 6월 9일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회 결산보고 및 지난 대회에 문제점 연구 분석 검토를 위한 이사회의를 소집하여 경기 전반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반성 토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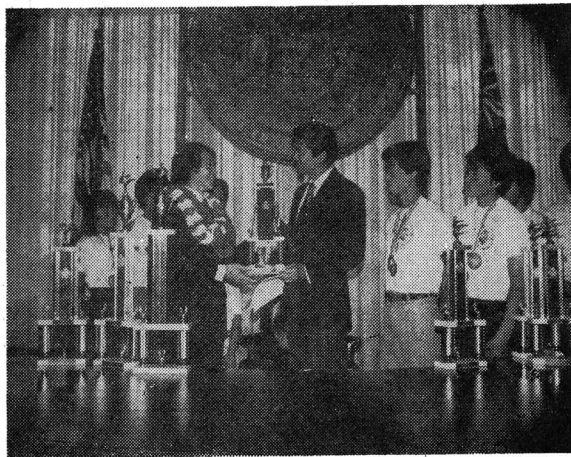
전 태권도 인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국기인 태권도 발전에 자기 주의부터 정화 할것을 다짐했다.

단체우승 : 진해도천국민학교팀

최우수선수 : 이정태(진해도천국민학교 5학년)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

Taekwondo in the World



하와이

〈하와이 주지사로부터 감사장과 공로표창을 받고 있는 송지성 사범〉

1976년도에 하와이에 건너가 태권도 보급에 힘쓰고 있는 송지성 사범은 79년도 제 4회 전 미국 태권도선수권대회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선수선발에서 1위에 입상하였다.

여자부편급에 우승, 그리고 남자부 편급과 편 팀급에 각각 우승자를 배출한 송사범은 그동안 하와이에서의 태권도 보급에 전력을 다한 공로로 하와이 주지사로 부터 감사장과 공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전 미국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삼년연승을 차지한 하와이 태권도의 위력은 송지성 사범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무도잡지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Black Belt」에 한국의 무도인으로 실린 송지성사범은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태권도의 발기술의 위력에 대해 언급했다.

태순양

최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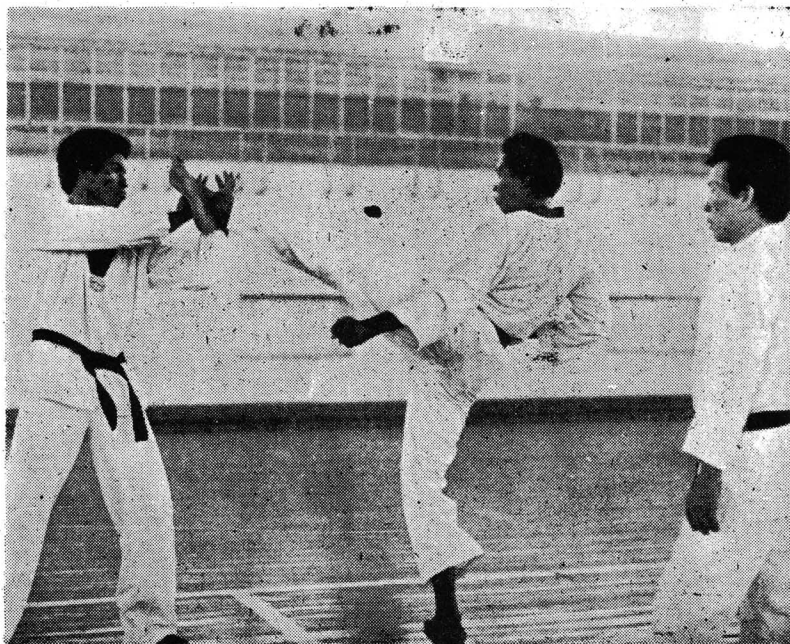
아프리카에서 온跆拳道留學生

아프리카에서 태권도 유학 차 한국과 학 기술자의 초청으로 두사람의 유단자가 내한했다. 79년 7월 1일 김포공항에 내린 이들은 그날부터 국기원에서 현재 세계대회와 대만국제초청게임에 출전할 선수들의 합동훈련에 참여했는데, 피부색과 신장의 차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땀을 흘리며 종주국의 태권도 진수를 익히기에 여념이 없다.

어퍼·볼타에서 온 태권도 2단인 올레드라고 크리스트퍼(31)와 4단인 코트리브와르의 지

르농 아르세네(33)는 10년 이상 태권도를 익혀 온 태권광인데 그들의 수련모습은 초단자의 그것처럼 겸허했다.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배영기씨는 비록 인종과 언어는 달라도 태권도를 익히는 데 뜻이 통해서 진지한 배움의 자세와 지도로 호응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코트리브와르의 아르세네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대표선수로 출전했으며 지난 4월 그나라에서 열렸던 아프리카 태권도대회에서 심판강습도 받아 앞으로 시험에 합격하면 심판자격도



언게 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파리유학중에도 한국의 파리주재사범인 이관영씨에게 태권도를 계속 배웠고 그의 권유로, 부인인 구엔·로셀린도 1단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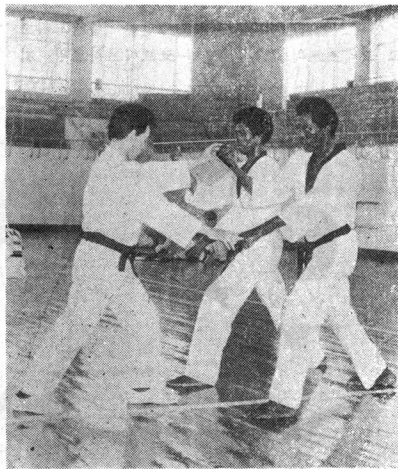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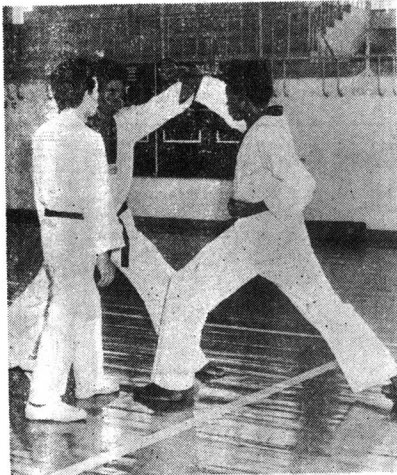
아르세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코트디부와르에는 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 태권도가 급속도로 보급 발전하고 있는데 그나라 국회의장이 태권도 명예회장직을, 보안장관이 태권도회장을 맡고 있는 등 국가의 정부 인텔리층들이 태권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태권도 인구가 약 1만 5천명에 달한다고 말하는 그는 태권도는 다른 무술보다 호신술로 매우 뛰어난 면이 있으며 신사적이고 깊이 알수록 심

오한 영욕의 세계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어퍼·볼타의 크리스토퍼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인상이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며 사람들이 친절해서 친근함을 느끼는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에게 한국 태권도의 진수를 익히고 귀국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 고향에서는 태권도가 가라앉을 축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태권도는 계속 아프리카에서 인기를 가세할 스포츠로서 곧 올림픽종목에 채택되리라 의견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4개월간의 수련을 마치면 귀국해서 태권도 보급에 기여할 것이다.



○ 세상은 결국에 있어서 바르다 만약 불이 강하고 진짜이기만 하면, 그리고 아름답고 오래타는 것이기만 하면, 세상은 그 불을 허락하는 것이다. 얇은 자리에서 믿음성있게 홀딱 타버리는 짚북더기 불에 대해선 세상은 차갑다. 겁에 질려 타는 등 마는등 하면 세상은 비웃는다.

땀내 나는 日常속에서



〈Colombia 태권도협회 전극 심사 실시후 기념촬영〉

흰 도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태권도를 수련하며 태권도와 숨쉬지 않은 세월을 보냈다. 한 길만을 뛰며 노력한 결과,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남미의 아카메미라 불리는 colombia 에 국제사범의 자격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삼년이 흐른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의 많은 시간은 땀으로 갈고 닦은 수련의 준비기간이 있었고, 피나는 노력과 집념과 정열의 전부였다.

낯선 외지의 벽안의 제자들에게 국위선양이라는 미명아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조국의 국기 태권도를 보급해 온 것이다. 그 보람으로 중미제국에서는 최초로 국가단위 체육회에 가입되는 영광을 갖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우리말 구령에 의해 보고타(Bogota) 체육대회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시합을 갖게 되었다. 그러기에 전년도 하반기에 남미 태권도 보급 이래 최초의 단체인원진이 국기원을 방문 특별동기훈련(심판코스)을 김운용 회장님과 여

력 임직원의 따뜻한 격려속에 무사히 마쳤으며 태권도의 모체인 대한 태권도 협회를 방문하여 강원식 전무이사님과 여러 임원진을 뵙고 보다 더 깊이 태권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때 전무이사님께서 하사하신 페난트와 기열 벨트는 이곳의 체육회장(마키 포레로씨)에게 전달되어 이곳의 체육회의 한 진열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제자들을 주축으로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가입의 과업을 위한 싸움을 도복과 태극기 속에서 절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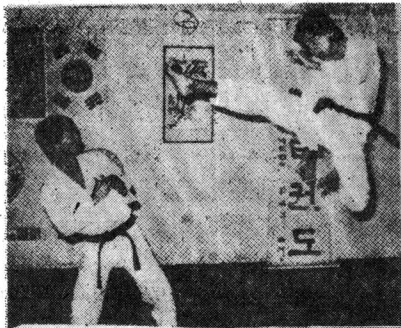
이곳 Bogota 체육회에 가입되던 날 평범한 나는 그저 덤덤한 상태에서 나의 상처투성이인 손간들을 조용히 내려다 보고 가장 기뻐해야할 입장이면서도 어쩐지 서글픔을 느끼는 지금도 있을 수 없는 감상이다.

이곳 보고타(Bogota) 체육회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었고 끊임없는 국제연맹과 가라테의 도전과 유사

단체등의 경쟁은 너무도 벽차고 시련의 연속임이 혁명한 사실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또한 나의 욕심은 이곳 보고타 체육회에 가입되었으니, 체육수업에 정규과목으로 강의하게 되길 바라는 것이다. 그일이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며 벅찬 업무일 것이다. 단계적인 계획아래서 충실하고 완벽한 실행만이 필요하다. 태권

도가 종주국에서처럼 체육과목에 삽입되는 곳 이곳에서의 내 최대의 꿈이고 야망인 줄 알고 있는 나는, 그러므로 이곳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체육교사 자격취득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수도 보고타 중심에 있는 누에바 고등학교(세계 50여개국의 학생 2,500명)에서 수업을 맡게 되었다. 나는 처음 외국인, 청



Tae Kwondo

2 nuevas categorías

La creación de dos nuevas categorías y el aumento de un punto en combates de carácter dilectos son las principales novedades que la Comisión Técnica de la Federación Mundial de Tae Kwondo, ha establecido para los programas que se suceden y que tienen relación con la preparación general de los deportistas de esta disciplina que deberán intervenir en los Juegos Olímpicos de 1984, evento que esta modalidad se ha incluido en el programa.

La información se desprende de la comunicación enviada por el secretario general de la Federación Mundial al presidente Kim Jong Il.

enfóndese en la capital de la República y con el área que se incluye el programa de referidos toda vez que estarán a partir cuando se de cumplimiento al campeonato mundial, previsto para el mes de octubre en el 82 y el 83 de octubre del presente año. En tal senti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Cuando se del conocimiento de los aficionados, en Colombia actualizándose los datos de estos deportistas, esperándose que en un tiempo próximamente se reúnan representantes de los diferentes clubes existentes y

procedan a la organización de esta entidad. Anteriormente, se delega a un Club la misión de efectuar el torneo nacional, se convocará a sus miembros a una anterior convocatoria en Bogotá, Medellín, Arica, Maracay y para tomar que se asocian por medio de representantes delegados.

REFORMAS

En el siguiente campeonato se aumentó la creación de nuevas categorías, la 9ª y la 10ª categoría, se agregan las del peso ligero de 48 kg a 51 kg y la 8ª categoría de 70 a 84 kg. Además se indica el uso de la fuerza, cada cuatro minutos de tres minutos, para permitir una buena recuperación de los atletas, además de ser realizados dos en los 20 minutos.

CATEGORIAS

En el Tae Kwondo se le otorga el título de campeón mundial, en el siguiente campeonato de 1982 en el mes de octubre en el 82 y el 83 de octubre del presente año. En tal senti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EXAMENES

Para el primer campeonato mundial se realizará en la ciudad de Montreal, Canadá, en el mes de octubre del presente año. En tal senti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portes
Trovayo Garmán
Hernán Silva
Graldo J.

mundial
El equipo de Colombia se prepara para el campeonato mundial de Tae Kwondo que se realizará en Montreal, Canadá, en el mes de octubre del presente año. En tal senti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Actividades

en Tae Kwondo

En días próximos un certamen de alto nivel de la Asociación Colombiana de Tae Kwondo, se desarrollará en el Gimnasio Nacional de Bogotá. El evento tendrá una duración de tres días, con una gran variedad de actividades. El certamen será organizado por el Comité Olímpico Colombiano y tendrá como objetivo principal la preparación de los deportistas para los Juegos Olímpicos de 1984.



BIENES INTERNACIONALES.—En la gráfica aparece el grupo de colombianos que compitió en Corea en un torneo de especialización sobre técnicas del Tae Kwondo. Aparecen, entre otros, el presidente de la Federación Mundial de Tae Kwondo, Kim Jong Il, y el secretario general de la Federación Mundial de Tae Kwondo, Kim Jong Il. Este grupo de atletas participó en el torneo de Tae Kwondo que se realizó en la ciudad de Pusan (Corea del Sur) el pasado 12 de octubre.

AL MUNDIAL.
De las ciudades seleccionadas para participar en el Campeonato Nacional de Tae Kwon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Opiniones sobre el Mundial-86

Por Amparo Amaya
El evento que cuando al punto forma parte de la preparación de un atleta, se realiza de acuerdo a las necesidades y al grado de importancia de la competición. En tal sentido se proyecta que próximamente se hará en Colombia el campeonato continental en el mes de noviembre, para escoger una selección que represente al país en el certamen.

소년들의 사열 앞에 서서 부임인사 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100여명의 교사진 속에서 나는 유일한 동양인 교사였고, 교장선생님의 인사소개중 국적 「코리아」라고 할 때 쏟아지던 박수소리와 함성은 너무도 깊게 내 가슴에 남은 것이 다.

학부모와 전교생이 참관한 가운데서 태권도 대시범을 실시하여, 태권도의 우수함과 그 현대적인 면모를 인정받아 그후 나는 매주 2시간씩 체육수업에 학생들을 「한국의 얼」속에 끌어들이므로 코리아의 이미지를 깊게 깊게 심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러한 노력이 인정을 받아 이나라 전체 학교에 정규과목으로 채택될 날이 오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태권도인의 승리라기 보다는 우리 조국의 정신적인 승리라고 자부하고 싶다.

이제 어느 한국인이 이 콜롬비아(colombia)를 다녀가더라도 태권도의 정신적 상위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적어도 공항에서 부터 우리 동양인을 만나면 태권도를 아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이고, 특유의 제수처에 당황하게 될 것이고 통관 수속절차에 있어서도 친절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홍보활동, 즉 TV, 라디오, 관중들 앞에서의 시범 등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금번 4월 첫주 금요일 일이었다. 내가 그곳의 국회의사당 임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을 비롯 상하 국회의원 자 부처장관님과 친분이 있었고, 만나면 태권도에 대한 대화를 할 기회가 많았다. 그날 국회의장님께서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분은 콜롬비아가 한국의 6·25 동란 때 참전했었기에 6월에 있을 태권도대회를 빛내고 태권도의 발전과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가간의 스포츠 외교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해 특별히 대령컵을 하사하여 주셨다.

나는 위치로 떠나는 이후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외교의 일

원으로 한국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다. 한사람의 태권도인으로써 어떻게 시작하여야 할지를 몰랐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진의했다. 즉 한국의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북한의 남침용 망골과 태권」 영화를 각 부처에 상영하고 싶다고 했다. 한참만에 결정이 내려 각 부처및 학교TV에서 「힘의 행진」(국방부제작)을 상영하게 되었으며 한층 이곳에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데 감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나는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아래 인간외교관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중요한 곳을 돌며 한국에서 제작된 영화상영을 함으로 좋은 반응과 결실을 얻고 있다.

내 개인의 힘은 미약하고 보잘 것 없으나 국위선양과 태권도 보급이라면 후회없이 뛰리라는 다짐을 하면서...

떠나나는 도복속에서도 내 자신의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을 구가하며 조국의 번영과 태권도가 올림픽광장에 당당히 진출하는 영광을 위해 작은 힘으로 열심히 될 것이다.

떠내배인 나의 도복, 상처투성이인 나의 손, 그리고 한국의 4월 하늘처럼 싱그러운 향수에 젖으며.....

이 기 정



브라질의 태권도

브라질 태권도의 역사 9년 동안에 많은 발전을 갖게된 이유중의 하나는 우수한 사범진들의 진출도 있었으나 거기에 못지않게 태권도 보급의 홍보활동도 활발했음이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현재 브라질엔 일본 「오이야마 가라테」 「다나 까가라테」 또 오노의 유도등을 완전히 압도하고 태권도의 우월함을 인정받는 실태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일본인 사범들은 물론 브라질인 제자들까지도 매월 회의를 열어 피리아노(한국의) 태권도를 방어하자는 논의가 금년들어서 부터 더욱 황왕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일선사범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너무 오랫동안 뿌리 박힌 가라테의 세력을 꺾는데 첫째 사범들의 좋은 기술과 뜨거운 정열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가라테하런 브라질인 7~8세 이상이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태권도라면 다른 무술과 비교해 그 수련이 「가라테」보다 훨씬 기술이 다양하고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 학생들이 선전을 함으로 차츰브라질인의 깊숙히 파고들게 되었다. 또한 그들 한사람 한사람이 10명내지 20명씩 가라테도장의 제자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가라테 사범들과 팽팽한 경쟁의식을 갖고 있다.

요즘들어 가라테도장 사범들로 거의 태권도지도 방법을 개입시키고 있다 하는데 그곳에 비록 가라테 도장이 약 150개 유도가

100개 정도에 10여 종류의 무도가 있으나, 14개 도장의 태권도는 그 발전가능이 밝고 몇년만 더 이대로 발전해 간다면 타 도장의 $\frac{1}{3}$ 은 문을 내릴 것 같다.

그동안 2년동안 무려 100여개의 가라테 도장이 운영판으로 문을 내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이곳 태권도 사범들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사범에 따라 품세가 달라 제자들을 지도하는때 의사심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연맹의 규정과 품세교육, 심판 관계등으로 통일을 한다면 교본에 의한 자자 연습이나, 정기적인 세미나로 개선되어 나가야겠다. 그러나 국기 태권도의 장래를 생각하고 열성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조금씩 해이해진 사람들로 인해 불참자가 생기고 비협조적인 안일한 변명을 되풀이함으로 인해 그 문제의 해결이 유보되고 있다.

이에 품세나 국제심판 교육등을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 태권도 인구가 많은 나라를 6개월 정도 순회하면서 이를 시정하면 해외 일선사범들을 뜨겁게 통합 단결하게할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좀더 과학적인 방법의 홍보 즉 태권도필립 상영같은 방법을 이용 영사기를 돌리던 태권도 보급에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허 경 열〉

자기의 본질적가치로서 남으로 하여금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할 자신이 없는 인간은 뿌하와의 접촉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교만한 태도를 공연히 겉으로 나타냄으로써 남의 비판을 멀리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美國의 跆拳道

미국 후로리다주에는 한국 사범이 15명 그리고 한 도장에 약 120여명의 수련생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데 일년에 3회의 주대회를 갖고있고 사범간에 교류와 단합이 잘 이루어져 태권도 발전에 고무적이다. 대회에 있어서도 한국식 호구를 착용 정식 룰에 입각한 대회를 치루고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종주국의 태권도 정보가 민활히 보급되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세계 태권도 일원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체계적인 태권도정보가 수시로 해외사범들에게 인체의 동맥에서 보급되는 맑은 피처럼 순환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 홍보활동은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한 시범과 한국 태권도영화와 함께 반공영화도 상영해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에 가라베가 이미 상륙하여 조지망을 넓히고 있던 생활을 바꿔 태권도 붐을 이르고 있다.

도장에서의 수련은 한국말 구령으로 일체의 한국식 일관으로 해오고 있으며 동양철학에서의 도(道)와 예(禮)를 중시해서 무도 스포츠로서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위주이고 리버러블한 생활 습관에 젖어 다소 흠어져있던 자세들이 차츰 정돈되어 태권도를 통한 협동과 예의를 실천하고 있다.

미국의 홀로리다주에 태권도의 씨를 뿌리고 건우며 느끼는 것은 급격히 증가하는 태권인구에

대한 느낌이라 할것이다. 그동안 AAU(Amateur Athletic Union) 태권도대회 3회를 계속 참관해 왔는데 77년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서 개최되었던 1회 AAU 태권도선수권대회엔 약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고 78년 워싱턴시티 대회엔 600여명, 올해 오하이오 대회엔 800여명이 참가하는 면모를 보였던 것이다. 이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태권도인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태권도의 뜻대를 잡는다면 멀지않은 시기에 세계적인 체육제전인 올림픽종목에 들 수 있을 것 같다.

태권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기초부터 철저히 익히는 운동으로 호신술이자 스포츠요 또한 테크레이션이며 신체의 기능을 회복케하는 요가의 형태까지 띄고 있어 운동부족으로 신체이상증을 조금씩은 앓고있는 미국인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기에 족하다. 거기에서 신비한 동양의 생활미와 정신까지 깃들여 있으니 현대의 메카니즘으로 건조해지고 고독한 서구인들에게 마음의 안정까지를 제공하는 스포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에서 태권도 보급에 맘을 흘리는 해외주재사범들은 도장의 분위기를 질서있고 안정감있게 환기시킨 후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협동 보람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태권도의 뛰어난 기술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파시해야겠다.

이 정 남
(AAU후로리다의장)

서독의 태권도

서독에 파견된 김남수씨는 대대적인 태권도 홍보활동을 펴나감으로 독일내에서 태권도붐을 일으키고 있다.

위험을 무릅쓴 시범은 물론 슐라이드 영사기 등을 사용하여 태권도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으며 2월 3일자 그레비너(Grevener) 신문에 볼볼은 원형의 구멍속을 통과하여 송판을 격파하는 모습이 실렸고 활동의 전모와 한국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조국을 방문한 교포학생들



이화여자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교포학생들이 하기방학을 맞아 모국에서의 여름학교에 참가. 고등학생과 대학생 52명이 6주동안 이화여자대학교 인터네셔널하우스에 입관했다.

이때의 김호순교수의 안내로 국기원을 방문한 이들은 서툰 모국어로 인사를 하며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을 관람했는데, 시범단의 대견한 표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시범이 끝난후 이들 학생일행은 일일히 국민학교 시범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했고 모국에서의 호젓한 하루를 국기원에서 보냈다.

韓國女性跆拳道聯盟創立

그 意義와 展望



〈女性跆拳道聯盟會長〉
李鶴仙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 있게 하는 정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은 참된 인간 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體育人 憲章의 머릿글을 거듭 읽으며 나는 精神 姿勢를 가다듬어 본다.

國際的으로 交流 되는 各種 運動은 그 本然의 意味에 있어서의 世界的인 擴張과 아울러 國境을 超越한 全 人類愛의 두터운 親善과 相互 理解 協力을 促進시키는 巨視的인 意味도 함께 지니는 것이다.

오늘의 世界가 그 國家理念이나 思想의 差異를 超克하면서 허심 탄회하게 한자리에 모여 제 각기 競技단의 實力을 發揮하는 것은 政治나 經濟 文化面에서 상상할 수 없는 人類 文化史的인 價値를 지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듯 現代 스포츠 精神은 어떤 理想으로 體力 단련 및 나아가서는 人類的 平和와 福祉 國家 形成에 共同 始發點이 된다는 歷史的인 깊은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重要한 時期에 우리 나라의 女性들도 國技인 跆拳道를 認識하고 女性聯盟을 試圖한 點은 他로부터 크게 주목 받는 種目임에 틀림 없다. 이는 數千年 傳來한 傳統 길은 跆拳道가 大韓民國의 國技라는 그 重要性에서이다.

그 어느 競技보다도 슬기롭고 卓越한 民族의 魂이 담긴 우리 高유의 武道라는 特性과 민활한 動作이며 技能의 순발력 등으로 볼때 어떤 運動과도 비교할 수 없는 優秀한 武勇性을 兼하고 있어 매혹적인 運動임을 자랑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될수 있는대로 많은 나라 女性들이 跆拳道에 참여 하여 힘을 거두는 「人類愛의 뜻 깊은 廣場」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램 또한 크게 作用한다.

跆拳道의 발상은 三國 時代로부터 계승 되어 온 유일한 傳統 武道이기에 이 뿌리 깊은 精神 思想을 우리 國民들의 意識 構造 속에 굳게 심는다는 課題가 우리 女性 聯盟의 使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던 無條件 輕視하는 固

質화된 習性を 脫皮 하여 우리 것을 尊重하고 아끼는 風土를 만들자는 뜻과 安保의 次元에서도 작은 使命을 다하게 된다는 信念으로 쉽지 않은 길을 選擇 하였다.

자고로 女性의 活動에 많은 제약을 받고 男性에게만 依存했던 前近代의인 思考 方式의 觀念이 아직도 잔존한 實情에서 女性 跆拳道의 주변 擴大와 보급의 길은 試練이 따르리라는 覺悟하에 새로운 決意와 團結로서 國力 伸張의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한것 욕망을 갖는다.

勿論 女性의 健康에 알맞는 科學的 根據를 둔 運動으로 開發되어 온 世界 女性의 애호를 받는 跆拳道가 될 것을 確信하는 理由는,

이미 86國에 뿌리내린 우리의 跆拳道와, 實力있는 師範들의 빛나는 活躍狀況을 보며 갈채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證明한다.

때문에 이 運動이 몸짓만으로 끝나는 運動이 아니라 유구한 歷史의 흐름 속에 담긴 道德의 기준과 修養단이 우선이어야 되겠다.

이러한 時點에서 우리는 계속 새마을을 精神과 維新 理念을 바탕으로人格도아와 技量을 닦아서 어디다 내세워도 손색 없고 자랑스러운 大韓의 딸들로 키워 갈 生覺이다.

이런 다부진 決意에서 볼때 本 聯盟의 課業은 산적 되어 있다. 오직 實踐단이 重要한데 그리 평탄 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우리 女性들에게 욕심껏 要請한다면 跆拳道가 大韓民國 國技라는 點을 銘心하고 적극 參與하여 人間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어 쓸모있게 하는 正화 과정이 되도록 當부하고 싶다. 女性 內面に 잠재하고 있는 진취적 思考는 明朗한 社會 氛圍氣를 造成함에 큰 뜻이 있다고 본다.

過去 우리 女性들은 어떻게했는가?

집안에 있는 것만이 美德이오 요조 숙녀로 일컬었으니 事實 現代 젊은이들의 立場에서는 쉽게 理解되지 않는 問題이다. 그 實例로 李朝時代 文學 作品에서 본다면 「內房歌辭」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곧 女性의 活動 限界가 房안에서만 허용 됐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때를 같이 하여 外國에서는 이미 女流 作家들의 作品 活動이 社論의 으로 보장되어 女性에 關聯된 오리

지날 作品을 쓰고 있었다는 대조적인 條件을 전 주어 볼 수 있겠고 또한 女性 運動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境遇 그 當時는 미미했던 女權運動이 大革命을 基點으로 해서 가열 되기 시작했다.

올랭트 드 구즈가 『女性은 단두대에 올라갈 자격이 있으므로 議會 演壇에도 올라갈 權利가 있다』고 한 말은 男女 平等 주장의 단적 表現이었다는 例를 비교하여 볼때 우리 女性들은 안방에서만 뱅뱅 맴도는 舞台단이 주어졌었고 큰대 당했던 歷史의 事實을 부정 할 수 없다.

이루렵의 思考方式이 이십세기 후반기인 現代에도 아직 그 후유증이 존속하고 있음을 나는 本 聯盟의 發足を 계기로 해서 다시 느꼈다고 하면 너무 과격한 表現인지도 모르겠다.

〈여자가 될 못해서 태권도를 하느냐〉等等의 달갑잖은 人事를 識者層에서도 많이 하였으며 빈축을 샀다.

나 亦是 跆拳道에 對한 알은 知識으로 始作했던 일이었으나 다만 國技라는 運動이 이따로 모욕적으로 짓밟히고 있다는 事實에서 어찌던 분노 같은 것을 맛보았기에 우선 國民들의 認識을 깨우칠 必要가 있다는 작은 愛國心에서 뒤였다

이렇게 해서 女性 同好人(二十三人)의 힘이 撐켜 韓國 女性 跆拳道 聯盟은 작게 誕生했다.

이제 우리 기성 世代는 올바른 選手育成에 주력해서 時代가 要求하는 女性像으로 脚光을 받는 女性 跆拳道가 되도록 最善을 다 할 責任을 갖어야겠다. 新生 女性 跆拳道가 基存의 다른 運動 기구와 같이 認識되는 社會的 視點이 하루 速히 이루어 지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全國에 散在한 女性 選手들과 한자리에 모여 團合 大會를 갖는 일이며 새마을 研修 教育을 실시하여 정신과 운동이 一致하도록 努力할 生覺이다. 이렇게 성장하여 1980年代에는 世界 女性 跆拳道 大會가 宗主國인 우리나라에서 幕이 올라 國威 宣揚의 좋은 계기가 될날을 謙遜한 姿勢로서 期待해 본다.

本 聯盟의 發足과 創立 總會를 爲해 信念을 불어넣어 주시고 物心 兩面으로 協助해 주신 金雲龍 會社님과 協會任員님 그리고 國技院 임원진께 깊은 感謝의 人事를 드린다.



일선 지도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姜 元 植
(協會 專務理事)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는 태권도에 몸담아 있으면서도 태권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량의 개발, 그리고 참된 태권도 정신의 수양에 소홀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자신을 하나의 미완성된 인간으로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겸손한 태도로 임하여야 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배우고 익히는데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관록보다는 의욕과 능력, 경력보다는 창의와 실천력을 더욱 소중히 하여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오늘의 우리를 위하여 내일의 후손을 위하여 누구의 도움을 바라기에 앞서 그 누구를 허물하기 이전에 나의 운명은 내손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자립의 의지를 굳게 하므로써 보람찬 결실을 거두어 보자고 당부하는 바입니다.

태권도는 이제 세계 90여개국에 보급 전파되어 명실공히 국제공인스포츠로 발돋움하여 그 판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일선 지도자 여러분!

태권도 중주국의 일원으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멀고도 험준하며 짐은 무겁고 걸음은 조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중도에서 길이 험하다고 멈출 수 없고 짐이 무겁다고 벗을 수 없지 않습니다.

일에서 사명을 느끼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인생관을 갖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협회 운영방침을 이해 파악하고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와 더불어 길이 가야만 되겠습니다.

지도자라면 선견성이 풍부하여야 하며 새롭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소화 도입해서 내일의 번영을 위하는 현상 타개에 의욕과 용기를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련생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기술만을 지도할 것이 아니라 운영방안에 대한 이론, 정신등을 홍보하므로써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신

용을 창조하고 드높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질적으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쳤으므로 해서 창조적 생산적인 인간을 형성함에 있어서 미흡하였던 것 또한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이제 구페로 남아있던 관통합을 이룩하여 행정 단일화를 꾀하였으므로 하나의 중심점으로 분산된 힘을 한곳에 모아 파급한 대동단결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태권도의 앞날은 바로 여러분의 양 어깨에 달려있고 태권도 보급의 힘에 의한 민족의 증흥도 여러분의 결의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는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태권도 한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창조하여 나갈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경기를 하는 선수는 경기에 임하여 자신의 평소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항상 겸허한 자세를 갖추고 심판에 절대 복종하며 지나친 승부욕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길러야 하겠으며 지도자는 항상 높고 그름을 똑바로 인식하고 실천하여 사리사욕을 떠난 생활태도로서 언제 어디서나 타의 모범이 되고 성실하며 맑고 밝은 역군으로서 국력의 일익을 담당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민족 한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듯 우리는 태권도의 지도자로서 대립과 분열은 언제나 자멸을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촌자이라도 망각함이 없이 태권도의 비전을 결코 굳은 의지와 신념으로 높고 바른 판단력 하에 태권도의 풍토를 정착시키고 위계질서를 바로잡아 우수한 태권도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여 태권도 코리아의 좋은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꽃피웁시다.

태권도의 손기술

〈거듭손〉



안
해
우
(국
도
체
육
관
사
범)



안
상
환
(협
조
한
사
범)

○—태권도는 대중화와 경기화로 인하여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스포츠」무술로써 자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劃一的)인 한정된 기술과 속도에서 장족의 방진은 했어도 실전기술 특히 손기술에선 담보상태를 넘어서는 퇴보상태(退步狀態)에 까지 이르고 있다.

얼굴 공격이 없는 태권도는 손기술이 죽어 버린 반쪽의 태권도이고 실전투기로써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고단자 및 사범들이 경기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전문적인 태권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경기 이외의 기술연구 및 수련의 등합시로 품세의 동작의 풀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기술의 깊이와 넓이가 커지지 않고 있다.

품세는 태권도 기술의 그 본체(本體)이고 전 부라 할 수 있다.

품세를 통한 몇가지 동작을 풀어서 고단자의 기술 몇 가지를 적는다. —○

겨루기를 할 때의 두 손을 태권도에선 산 손(生手)과 죽은 손(死手)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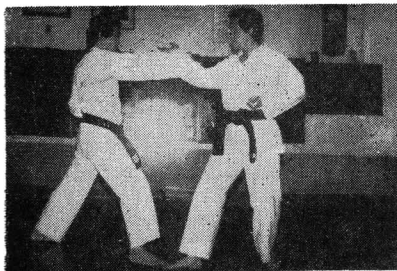
상대에게 가격(破擊)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손과, 공격이나 방어로 인하여 동작이 자유롭지 못한 제한된 손의 두가지가 있다.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공격을 해서 상대의 방에 걸린 손은 죽은 손이다. 서로 떨어져 있는 상대에서도 공격으로 사용할 손과 방어로 사용될 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산 손 죽은 손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상대의 손을 둘다 죽은 상태로 만들고, 내 손을 산 손으로 만들기를 겨루기에서는 서로 원한다.

그러나 고단자가 되면 산손과 죽은 손의 구분이 없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공격이 곧 방어이고 방어가 곧 공격이라는 개념(概念)이 성립된다. 이런 상태에 이를려면 직선적(直線的)인 힘을 줄 수 밖에 없는 초보단계(初步段繼)에선 불가능하고 곡선(曲線)의 공격이나 방어기법에 전신(全身)의 힘을 실을 수 있는 고단자(高段者)라야 가능하다. 방어한 손을 다시 공격하되, 얼굴에 물려있는 인체(人體)의 사혈(死穴)을 공격하는 이런 기법을 태권도의 거듭손이라 이름을 붙혀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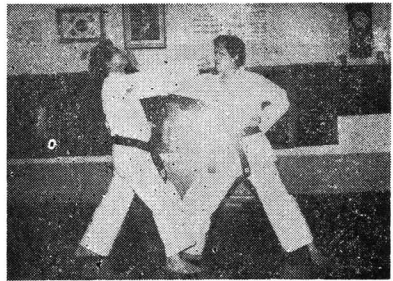
기법(技法)의 해설(解説)

다른 무술에선, 오기나와 메(沖繩手)가 갖고 있는 회전방어(回轉防禦) 기법(技法)은 잡기와 넘기기가 주(註)된 거듭손이 있으나 타격(打擊) 위주의 태권도에 비교 될 수 없고, 이것이 발전된 일본(日本)이 자랑하는 「가라테(空手道)에선 강유류(強柔類) 유파에서도 굵고 굵는 소림권(小林拳)의 나한권(羅漢拳)과 유사한 강기(強氣)와 강기(強氣)의 거듭손 형태가 한 듯곳 보이나 무시해도 좋을 단치의 효과가 없다. 중국(中國)공부무술(功夫武術)에서의 내가권(內家拳)유파 중(中)에서는 손동작이 일합(一合)에 4가지까지 변화하는 세세한 기술이 있으나,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법(打擊法)이 못되고, 수기위주(手技爲注)가 아닌 태권도와 같이 큰 기술을 상용하는 무술에서는, 손동작의 세밀화로 인한 강한 받기 기술을 걸 수 있는 연계동작(連繼動作)에 부적합함으로써 단수(單手)에서 복수(復手)로 손기술은 끝이나야 한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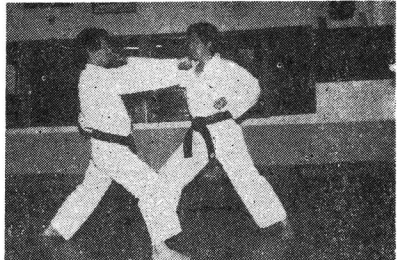
거듭손을 쓸 때는 막기를 강하게 끊어서 막으면 안된다. 다시 말해서, 기(氣)가 단절(斷切)되지 않으며, 직선적(直線的)으로 막지 않고, 상대의 힘을 바로 받지 말아야 한다. 막기는 부드럽게 공격은 강하게 한다. 즉 힘의 강약(強弱)과 기(氣)의 흐름이 바로 요결(要決)이라 할 수 있다. 보법(步法)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곤 앞발이 손동작의 진행선과 비슷한 방향(方向)으로 옮겨야 한다. 여기에서는 오른 손의 경우만 적으니까 왼손은 반대로 행(行)하면 되겠다. 몇가지 더 있는 기법(技法)은 생략했다.



<사진 ①-⑦>



<사진 ①-④>



<사진 ①-⑤>

A) 동작 설명-①의 형태에서 사진 (7)은 상대의 주먹공격을 바탕손 안막기한 상태이다. (ㄴ)은 그 다음 동작으로 대표적인 바탕손 얼굴공격이다. (ㄷ)은 편손끝 바깥 후려치기다.

B) 공격 종류-(가위 손끝→눈공격), (주먹→인중, 턱), (바탕손→인중, 턱밑), (한손끝→흉침), (편손끝→목눈), (갈구리손→얼굴 전체)(동주먹→코, 인중) (손날→목)

C) 보 법-앞발을 상대의 두다리 사이로 약간 전진하여 앞굽이 자세를 만들거나 주춤서기와 앞굽이의 중간 모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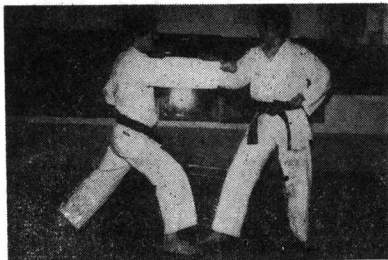
D) 손의 진행선



E) 보조 설명-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는 손의 사용 및 모양은 생략했다.

①의 형태에선 가장 빠른 공격을 할 수 있고 공격이 다양성(多樣性)도 기할 수 있으나, 상대에게 전면(前面)의 급소를 내주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크다.

②의 형태



<사진 ②-⑦>



<사진 ②-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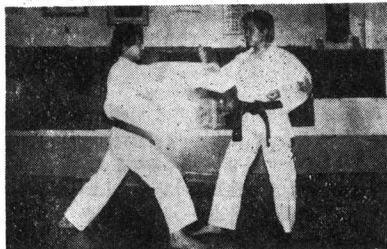
A) 사진 ② 동작 설명-(7)은 손등 제껴서 안쪽에서 막은 모양이고 (8)은 그 손을 그대로 손날 목치기 한 것이다.

B) 공격 종류-(손날→목) (편손 끝→뒤집어 목 찌르기, 눈후려치기) (주먹→인중)

C) 보 법-상대의 깊은 공격시에 막을 수 있는 거법이기 때문에 거의 제자리에서 타격을 할 수 있다.

E) 보조 설명-가장 근거리 타법이므로 상대의 산손 반격에 유의한다.

③의 형태



<사진 ③-⑦>



<사진 ③-⑩>

A) 사진 ⑩ 동작 설명-(7)은 손날로 얼굴이나 몸통 안막기 한 모양이다. (8)은 막은손으로 등 주먹 얼굴치기 한 모양이다.

B) 공격 종류-(주먹 뒤집어치르기→인중) (등주먹→얼굴)

C) 보 법-앞굽이로 만들며 앞발 나아감

D) 손의 진행선



E) 보조 설명-①의 형태에서의 모든 공격도 가능하나 손의 회전이 빨라야 하기에 고도의 수련을 요하며 따라서 권할만한 공격법이 못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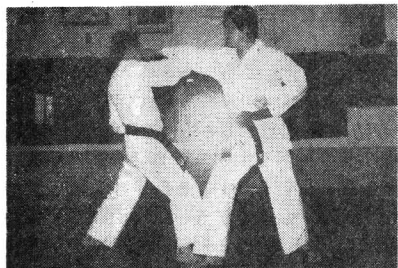
④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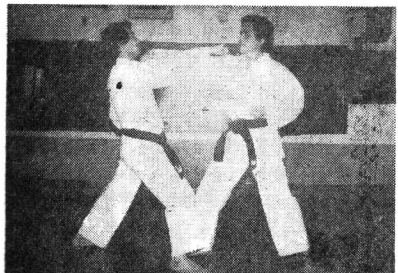
<사진 ④-⑦>



<사진 ④-㉔>



<사진 ④-㉕>



<사진 ④-㉖>

A) 사진 ④ 동작 설명-(7)은 손등 제껴서 바깥 막기이고 (ㄴ)은 그 손으로 손날등 공격한 모양이다. (ㄷ)은 막은 손으로 주먹 쥐고 얼굴 공격한 모양. (ㄹ)은 제껴 막은 손을 상대의 팔 밑을 돌아서 밑에서 위로 상대 턱을 손목 등 공격한 모양이다.

B) 공격 종류-(손날등→관자노리, 인중, 목)
(갈구리손→얼굴 천체) (주먹→인중) (손목등→턱 울러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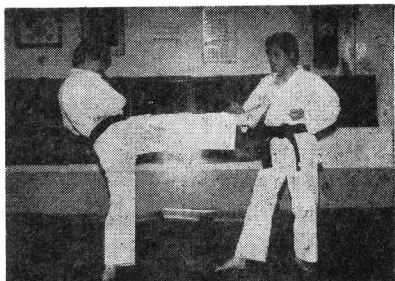
C) 보 법-상대의 바깥 쪽으로 발이 나아간다 단, ④-ㄷ의 경우는 안쪽이다.

D) 손의 진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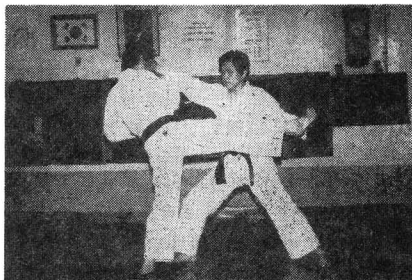


B) 보조 설명-가장 효과적인 공격법은 손날 등이며 (ㄹ)의 경우를 제외하곤 밖으로 몸이 빠지기 때문에 상대의 다음 공격을 거의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⑤의 형태



<사진 ⑤-㉗>



<사진 ⑤-㉘>

A) 사진 ⑤ 동작 설명-(7)은 상대의 앞차기 공격을 손목 제껴서 45° 대각선으로 눌러막은 상태이고 (ㄴ)은 그 손을 손목등 만들어서 상대의 얼굴 공격한 것이다.

B) 공격 종류-(등주먹→얼굴) (메주먹→얼굴)
(손날→관자노리) (손목등→턱)

C) 보 법-발차기를 막은 손공격이기에 앞발을
깊숙히 상대의 몸에 파고든다.

D) 손의 진행선



E) 보조설명-손목제껴 막기는 고단자의 방어기
법이고 손목 부위가 약하고 상대의 공격하는 지
선적인 힘을. 비껴 가면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나 저단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

⑥의 형태

A) 동작 설명-상대의 돌려차기 공격을 안팔목
아래막기로 받는다. 다음에 그 손으로 직선으로
올려서 공격한다.

B) 공격 종류-(손목등→턱, 올려치기)

C) 보 법-앞발이 반보 나아간다.

D) 손의 진행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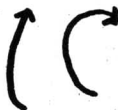
E) 보조 설명-이 기법에 부처서 얘기하면 사람
의 체격(體格) 체질(體質) 체력(體力)에 따라서
공격 방법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키 큰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은 작은 사람에
겐 어렵고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 힘이 강
한 사람 약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기술은 다르다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기술을 적어야 하
나 지면 관계상 줄인다.

⑥의 형태의 공격은 극히 효과적이며 그 이유
로써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기법엔 모두 약하
기 때문이고 손목등은 이 세상에서 가장따른 공
격무기이기 때문이다.

⑦의 형태

총철-상대의 옆차기나 앞차기 공격을 바탕손
으로 비스듬히 내려 막은 순간 힘(力)은 앞으로
흐른다. 손날 목치기와 판손끝 후리가 효과적
이다.

(☆) 손의 진행선



위의 그림의 여섯가지 모양에 따라 손을 움직
여 나간다. 손은 힘을 뺐, 상태에서 빠르게 그린
다. 정면에서 보고 하는 경우와, 위의 그림이평
면도라 생각하고 바닥에 붙이고 편히 앉은 자세
에서도 행(行)한다. 손의 출발 지점은 화살표
(→)가 있는 지점이 되므로 20군데가 되겠다.

손은 가볍게 움직이되 몸은 무겁게 하며 동작
(動作)중일 땐 호흡을 끊는데, 단견호흡(丹田呼
吸)으로 숨을 마신 상태에서 1/3쯤 배출한 상태
가 좋다. 숨을 마신 경우에는 항문은 오구리고
눈(目)은 평안(平安)의 자세를 취한다.

힘을 단련하기 위해선, 손과 팔에 힘을 강하
게 주고 무겁게 천천히 행(行)한다.

<끝 말>

나는 항상 태권도를 생각한다. 길을 걸을때나
얘기 할때나 밥을 먹을때나 경기나 심사를 볼때
나 모든 사물(事物)을 태권도의 발전적 요소와
기술을 연관시켜서 본다. 무급의 수련생의 회터
리 동작에서도 새로운 기법을 뽑아내어 의열을
느낀다. 나는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이다.

스포츠(體育) 태권도는 근력(筋力)이 떨어지
면 끝이난다. 그러나 무도(武道)라권도(跆拳道)
는 늙어서 더욱 빛이나고 완성되어 간다. 원로
(元老)들의 공헌에 대한 댓가가 지불되고, 태권
도를 체계화하고 集大成하는때 의구감과 사망감
을 갖고 일할수 있는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
政的) 뒷바라지 속에 태권도의 매력(魅力)은 더
해갈 것이고 세계속에 태권도는 뿌리를 나리고
거목(巨木)으로 성장할 것이다.

협 회 동 정

☆3월 11일

제86회 승품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27명

☆3월 21일 ~24일

1979년도 전국 신인 선수권대회 개최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1,004명

☆3월 25일

제87회 승품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86명

☆4월 8일

제88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782명

☆4월 14일

제87회 고단자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44명

☆4월 15일

제87회 승단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42명

☆4월 21~22일

제89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75명

☆4월 23일~26일

제 5회 한국 중고연맹 회장기쟁탈 태권도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820명

☆4월 28일~29일

1979년도 심판원(2급·3급) 보수교육 실시
장 소 : 국기원
수강인원 : 127명

☆4월 29일

1979년도 심판원(2급·3급) 보수교육수료식
장 소 : 국기원
수료인원 : 119명

☆5월 6일~8일

제 5회 한국 국민학교연맹회장기쟁탈 전국 단
체대항 태권도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309명

☆5월 13일

제90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197명

☆5월 27일

제91회 승품심사대회 개최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85명

☆5월 31일~1일

제 8회 소년체육대회(청주)
장 소 : 충북고등학교강당

☆6월 9일

제 4 회 세계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대표선수최
중선발대회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40명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786명

☆6월 10일

제92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816명

☆6월 24일

제93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943명

☆6월 12일~13일

대학연맹 개인 선수권대회

장 소 : 국기원

☆6월 25일~26일

제 1 회 서울시 국민학교 태권도선수권대회개최

장 소 국기원

☆6월 15일

제26기 지도자교육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74명

☆7월 5일~7일

제60회 전국체전 서울시 예선대회개최

장 소 : 국기원

참가인원 : 320명

☆ 6월 16일

제88회 고단자 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26명

☆7월 8일

제94회 승품심사대회

장 소 : 국기원

응심자수 : 61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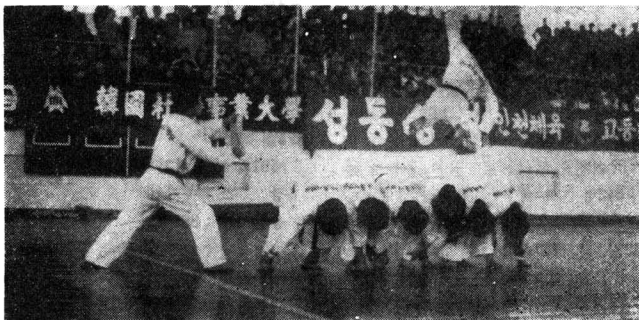
☆ 6월 17일

제88회 승단심사대회

☆7월 12일

국제 초경 태권도대회 파견 학국 남녀 선수단
결단식

장 소 : 국기원



K. T. A. Journal

***March 11, 1979**

The 86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827 persons.

***March 21~24, 1979**

National New Face Taekwondo Championships of the year 1979.

Place:Kuk Ki Won

Applicants:1004 persons.

***March 25, 1979**

The 87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1004 persons

***April 8, 1979**

The 88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782 persons

***April 14 1979**

The 87th high dan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44 persons

***April 15 1979**

The 87th Seoul area dan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 842 Persons.

***April 21~22, 1979**

The 89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ak Ki Won

Applicants:175 persons

***April 23~26, 1979**

The 5th Middle and High School T.K.D Championships

Place:Kuk Ki Won

Applicants:820 Persons

***April 28~29**

Referee (2.3) Supplement education

place:Kuk Ki Won

Applicant's:119 persons

***May 6~8 1979**

The 5th primary school TKD Championships

place:Kuk Ki Won

Participants:309 persons

***May 13, 1979**

The 90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797 persons

***May 27, 1979**

The 91st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885 Persons

***May 31, 1979**

the 8th

National Boys Athletic Games

Place:Gymnasium of Choung Book High School

***June 9, 1979**

Korean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for the 4th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Place:Kuk Ki Won

Applicants:40 persons

Applicants: 786 persons

***June 10, 1979**

The 92nd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Kuk Ki Won

Applicants: 816 persons

***June 24, 1979**

The 93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943 persons

***June 12-13, 1979**

National Collegiate Taekwondo Individual Championships

place:Kuk Ki Won

***June 25~26 1979**

The 1st Seoul Primary Taekwondo Championship

Place: Kuk Ki Won

***June 15, 1979**

The 25th Instructors training course

place: Kuk Ki Won

Applicants:74 persons

***July 5~7, 1979**

Taekwondo tournament for the 60th National Athletic Games

Place: Kuk Ki Won

Applicants: 320 persons

***June 16, 1979**

The 88th high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267 persons

***July 8, 1979**

The 94th Seoul area poom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Applicants: 614 persons

***June 17, 1979**

The 88th Seoul area dan promotion test.

Place: Kuk Ki Won

***July 12, 1979**

Held ceremony of Korean national team formation for the International Invitation Taekwondo Game

Place: Kuk Ki Won



국민체육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金雲龍 會長

1979년 5월 28일, 大韓跆拳道協會 會長이자 世界跆拳道聯盟 總裁인 金雲龍 박사는 朴正熙 大統領閣下로부터 국민체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았다.

명소 跆拳道로 國民體力를 強化하고 國家安保의 有力한 힘으로 全國民의 跆拳道化에 힘써는 金會長은 지혜와 기술, 그리고 강한 精神力, 진진한 人間形의 國民性을 키워나가도록 할 것이며, 국민체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韓國 體育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大學跆拳道聯盟附設 跆拳道 研究所

韓國大學跆拳道聯盟은 79年 6月 11日 오후 6時 30分에 檀國大學校 本館에서 跆拳道 研究所 開所式을 갖았다.

이날 기념식을 중심으로 제1회 跆拳道敎養講座와 大學跆拳道人의 밤이 열렸는데, 跆拳道敎養講座의 演士로는 金雲龍 世界跆拳道聯盟 總裁(法學博士)와 金鉉煜 檀國大學校 教授(政治學博士)께서 跆拳道 世界化와 現代化에 따른 技術 精神의 발전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번 이 跆拳道研究所를 설치하게 된 취지는 우리나라 國技로 出發하여 國際的인 스포츠 種目的의 하나로 光榮받고 있는 跆拳道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現在 능력위주에서 벗어나 科學的 理論과 技術을 바탕으로 훈련지도로서 실력을 계발하는 단계의 현대스포츠에 발맞추어 未來를 향한 跆拳道의 方向 설정과 跆拳道에 포함된 과학적·영역의 여러 部分에서 研究開發된 理論과 實證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跆拳道 發展을 實現해야 할 기구로 韓國大學跆拳道聯盟에서 附設기관으로 설치한 것이다.

한편 7시부터는 대학태권도인의 밤을 개최하여 많은 태권도계 및 체육인사들이 모여 국기태권도 발전을 위한 정담을 마음껏 나누었다. 이 기관의 연구분야와 주요사항을 보면 연구분야에선

1. 태권도 교육의 諸問題에 관한 研究

○跆拳道와 관련된 體育政策·制度의 分析評價

○敎科課程 및 교육개선에 관한 研究

○跆拳道 敎授方法 및 教育資料의 開發

○跆拳道에 관한 제 規定과 그 개선에 관한 研究

○基本動作 및 폼세에 관한 研究

○폼세와 겨루기에 관한 研究

○擊破와 시범에 관한 研究

○跆拳道 競技의 技術開發에 관한 研究

○시합 겨루기의 技術 向上에 관한 研究

3. 跆拳道의 生活化와 體力增進에 관한 研究

○跆拳道 體操 또는 武道 體操에 관한 研究

○跆拳道를 통한 體力의 維持增進에 관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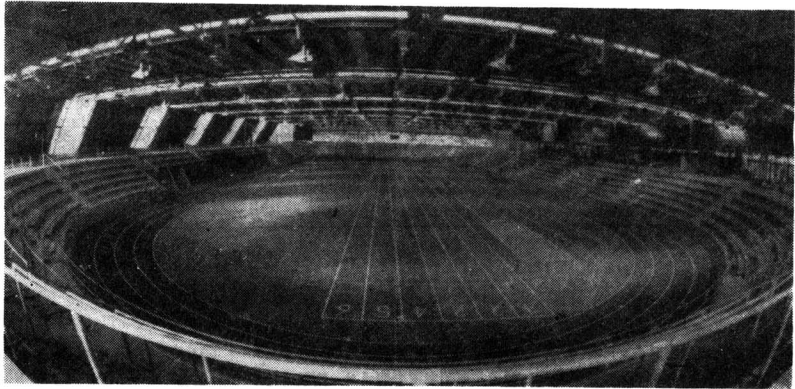
○體力의 診斷, 트레이닝, 평가에 관한 研究

2) 主要事業은 각종 연구 간행물의 出版과 아울러 學術發表會 문헌자료 蒐集整理 및 配布와 國內의 연구기관과의 協力 研究 그리고 委託研究의 수행, 태권도 지도자 연구, 태권도 器資材의 研究開發 및 製作을 事業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모쪼록 계획과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跆拳道 발전에 기여할 기구로 계속 자라나 추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第四回 世界 跆拳道 選手權大會가

開催될 西獨의 Stuttgart.



第四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가 오는 10月26일부터 28일까지 西獨의 Stuttgart 진델핑겐 경기장에서 開催된다.

이번 世界大會에는 90個 會員國에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베네티 월남 등 공산권 國家를 포함한 70個國이 참가하여 힘과 技術의 축전을 벌릴 예정이다.

73年 世界跆拳道聯盟이 창설된 이래 매 2年마다 開催되는 世界選手權大會는 73년과 75년은 韓國에서 77年은 美國의 시카고(Cicago)에서 열렸는데 이를 거듭할수록 그 참가 會員國과 選手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技術과 體力 또한 급격히 발전 변화하는 면모를 보임으로 名實共히 世界的인 스포츠로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77年 시카고 태권도 총회에서 통과된 79년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의 西獨 開催案에 의해 결정된 第四回 大會의 開催地域인 西獨의 Stuttgart 市の 「진델핑겐」 경기장은 8천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유럽 유수의 메머드체육관으

로 10월에 있을 大會 開幕을 앞두고 행사준비로 분주하다는 소식이다.

第四回 世界跆拳道選手權大會 일정표

(79. 10. 21~10.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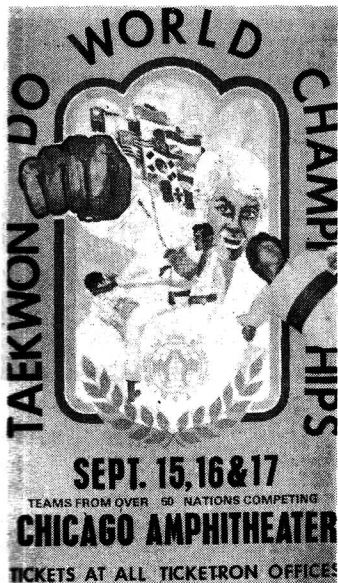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제 8 차 국제 심판 강습회	10. 21— 10. 24	진델핑겐 체육관
제 3 차 세계 연맹 실행 위원회	10. 24— 오전	진델핑겐 회의실
제 4 차 세계 연맹 총회	10. 25— 오후	상 동
세계 연맹 기술 위원회	10. 24—	상 동
대표자 회의	10. 25—	조직위
심판 회의	10. 25—	조직위
경기 예선	10. 26— 10. 28— 09:00	진델핑겐 체육관
개회식	10. 26— 18:30	''
본 선	10. 28— 14:00	''
폐회식	10. 28— 15:30	''

앞으로 81년에 있을 第五回 世界大會開催地로는 현재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엘살바돌이 신청중이다.

10월 26일부터 開幕될 대회에 앞서 10월 24일 25일 양일간은 世界跆拳道聯盟 第四次定期總會와 實行委員會 및 技術委員會가 열리게 되며, 아울러 國際審判세미나도 실시된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세계 올림픽 위원회), GAISF 집행위원

을 비롯하여 世界各國의 體育指導者가 참석할 예정이며, 20세기, 폭스사를 비롯, 美國의 NBC, ABC 텔레비전 방송위원들이 보도진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이 대회에 참가할 韓國의 10體級 選手들은 實力을 強化하기 위한 합숙훈련을 하면서 世界的으로 跆拳道 宗主國의 면모를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 제 3회 세계대회의 포스터



↑ 시카고 제 3회 세계대회의 입장식

체 급 변경

세계태권도 연맹에서는 경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10월 서독에서 열리는 기술위원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중전의 8체급에서 10체급으로 경기시간 2분 3회전에서 3분 3회전 후속시간 1분을 확정되어 통보해 왔다. 새로 변경 증설된 체급을 보면 핀급을 48kg이하, 프라이급은 48kg이상 51kg이하, 밴텀급 51kg~56kg, 페더급 56kg~60kg, 라이트급 60kg~64kg, 웰터급 64kg~68kg, 라이트 미들급 68kg~73kg, 미들급 73kg~78kg, 라이트헤비급 78kg~84kg, 헤비급은 84kg 이상이다.

호주의 체육장관 국기원 방문

호주의 스포츠 장관이자 테크레이션장관을 겸하고 있는 케시(Mr. T.M. Cassy)씨가 1979년 4월 9일 오전 11시, 국기원으로 김 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방문했다.

케시씨는 약 10년 전부터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태권도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힐수록 육체와 정신을 단련할 수 있고, 신체의 유연한 테크닉으로 생활을 정화하는데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케시씨는 본국 호주에 있는 태권도인구를 약 2만여명으로 보고 있으며 자지에 약 백오십여개의 도장이 있다고 했다.

현재 케시씨는 7세의 딸과 삼세의 손녀에게 태권도를 수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날 국기원에서 김 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및 보도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케시씨는 두께 2cm 정도의 송판을 격파했다.

또한 호주의 스포츠장관으로서 김 운용회장에

게 수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김 운용회장은 명예단증을 수여했으며, 두 나라의 스포츠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김운용회장>

폴란드와 태권도

79년 4월 28일. 오지리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사범 이 경명씨와 함께 태권도의 중주국인 한국을 방문한 공산권나라 폴란드의 코나스키(Kona-ski)씨가 국기원으로 김 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방문했다. 현재 태권도 공인 3단을 보유하고 있는 코나스키씨는 공산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상을 초월하여 폴란드에 태권도를 활발히 보급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서울시민들의 활발하고 온화한 표정들과 그리고 한국의 봄이 풍기는 소담하고 부드러운 운향에 경의를 금치 못했다고 했으며 앞으로 계속 유럽지역 공산국가에 더욱 활발히 태권도가 보급되어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현대스포츠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기범뿔지를 달아주고 있는 김운용 회장>

코나스키씨는 김 운용 회장에게 한국 방문을 기념하는 페난트를 증정했고 김 운용 회장은 세계로 뻗어간 태권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팜플렛을 주었으며 유럽 국가 간의 태권도 친선도모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펼치는 태권도 시범을 보며 코나스키씨는 한신 한신을 카메라에 담으며 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태권도인으로 시범단의 동작 하나 하나를 관찰하는 태도를 보였다.

코나스키씨는 약 일주일간의 체류기간 동안 한국의 관광지와 산업지를 돌아보았으며

경주, 부산등 지방의 도장들을 방문, 한국의 태권도 숨결을 직접 호흡했다.



<미동국민학교 태권도 부원과 함께>

PATA 총회 기념 행사로

79년 4월 18일 오후 4시. 국기원의 관람석에는 이색적인 사람들이 이백여개의 좌석을 메우고 앉았다.

자국에서 이번 한국에서 열린 태평양지역 관광협의회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PATA 임원들은 태권도시범을 관람하며 카메라의 셔터를 질세없이 누르고 시가를 피우며 눈이 동그라져서 열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과 태권도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하여 범세계적인 PATA 총회의 축제 무우드를 재확인케 했고 더불어 한국시범단과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들의 재기어리고 기상천외한 태권도 시범으로 한국의 면모를 새롭게 했던 계기였다.

관람석에서 터져 나오는 환호와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으며 시범단들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태권도의 특유한 묘기를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이날 태권도 시범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열렬했다. 국내에 있는 태권도인들도 채 예상치 못했던 호응임을 볼 때, 세계속의 우리 國技를 좀 더 발전시키고 다듬어 긍지와 신념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태평양지역의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갖는 이 회의에서 우리의 국기 태권도가 원더풀 한국을 앞장서는 현대 스포츠로 그들의 마음에 심어졌다는 것으로도 이미 우리는 국위선양의 한 몫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국 여성태권도연맹 결성

최초로 여성들만의 태권도연맹이 그 창립을 보았다. 79년 3월 30일 오전 11시. 국기원 회의실에서 열린 창립총회에 의해 명실공히 태권도 발전의 한 역사를 장식하게 된 것이다.

두 차례의 연맹결성취지를 위한 회의를 열어 규약안과 취지문을 성안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함으로써 이제 국내의 여성 태권도는 국내 태권도 보편화와 정신적인 확대에 뚜렷한 활동을 보이게 되었다.

3월 30일 축복히 내리는 봄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각계 각층의 인사와 태권도 애호인들이 보내는 성원과 축하에 힘입어 앞으로 여성태권도 연맹은 미래를 위해 끝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 학선씨는 「오늘날은 여성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한 한 여성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술로 조상들의 얼이 담긴 스포츠이므로 이에 국가화된 현 시점에서 여성들도 태권도를 알고 태권도로 심신을 닦고 태권도로 나라를 지키는 정신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으며 앞으로는 온 세계에 태권도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인사말을 끝맺었다.

이날 회의의 절차를 보면 예산안 심의 사업계획 심의와 회장 선출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영숙 사범이 책정된 규약안을 낭독했다.

회의가 끝난 후 경기장에서선 여성태권도 시범단들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으며 곧 계속 내리는

봄비 속에서 따뜻하고 오붓한 오찬이 열렸다.

이번 여성 태권도연맹이 결성되는데 그 추진위원의 명단과 사업계획서는 다음과 같다.

韓國女性跆拳道聯盟推進委員名單

委員長	李鶴仙	새마을奉仕會 中央會長
委員	成丁順	梨花女大 體育大學長
"	朴晶淑	한국걸스카우트聯盟事務總長
"	田花蜂	새마을奉仕會 中央會 副會長
"	崔寶培	韓國女性團體 協議會 監查
"	金良植	女流文學人會員(詩人)
"	金榮淑	鮮美體育館 師範(跆拳道4段)
"	姜容子	京鄉新聞社 文化部次長
"	朴永淑	東信通運株式會社長
"	張보성	여의도高等學校 教師
"	朴惠永	明知女子高等學校 教師
"	金鈴子	서울觀光特殊支部婦女部長
"	朴淑姬	韓國看護補助員協會長
"	尹金善	市立第1婦女福祉館長
"	왕준연	韓國食生活開發研究會長
"	權惠卿	演藝人
"	黃靜子	女流畫家會員
"	이기열	韓國銀行 無窮會長
"	정희원	엘티비리연구소 연구위원
"	吳榮淑	새마을教育 講師
"	金明順	새마을金庫 永登地區 理事
"	權修賢	女性實業人協會 理事
"	朴영채	現代印刷社長
"	李金浩	傳道師

1979년도 사업계획

월	일	사	업	명	장	소	비	고
3		창립총회			국	기	원	
4	2일간	제 1 회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배경탈 여성 태권도선수권대회 회점 제 4 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			국	기	원	
5	2일간	제 1 회 전국 여성 태권도 유단자 새마을연수교육			국	기	원	
6		여성태권도 시범단 전발대회						
7	28~29	제10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참가			국	기	원	
8		제 1 회 여성단체 대항 태권도대회			문	화	체	육
9	30일간	해외파견선수 강화훈련			선	미	체	육
10	2일간	제 2 회 전국 여성 태권도 유단자 새마을연수교육			국	기	원	
11		제 4 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파견			서	독		
12		일선장병 위문시범단 파견			중	부	전	선
								국방부와 협조



구라파 跆拳道의 現住所

— 宗主國에 걸어 보는 期待 —

李
京
明

봄에 파릇 파릇 순을 내는 나무들은 엄동설한을 견디어 낸 보람인 것이다. 그 나무들이 또한 알찬 열매를 맺기 까지에는 더 많이 인고하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듯 정녕 아쉬운 시기——宗主國에 걸어 보는 期待——가 또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는 10월 서독 STUTTGART에서 제 4회 세계 태권도선수권大會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구주 태권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서독은 지난 해 10월 핀렌 제 2회 구라파선수권대회를 치렀고 오랜 숙원이던 1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구라파 태권도연맹(ETU)회장국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경사스런 일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지난 4월 7, 8일간 핀렌에서 ETU 간부회의를 가졌는데 나는 여기서 다음 세가지 사항만은 참고로 밝혀 우리 다함께 재고해 봄지 하다고 여긴다.

그 첫째는 段증은 각 국가 協會에서 자의로 발행하되, 단 필요성을 느낄때 국기원에 신청교부받을 것. 둘째는 一元化된 승급, 단심사규정제정, 그리고 셋째는 ETU 발행, 국제심판자격증 등이라 하겠다.

그 첫째의 단증 문제는 ETU회장인 H. MARX 씨는 독일협회의 경우는 오랜 논란끝에 이미 국기원에 승단신청을 하고 교부받기로 했다면서, 전제조건 회의진행에서 부연으로 국제유도연맹의 경우를 설명하며 유도는 단증을 각국 協會에서 자의로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였고 WTF(국기)원의 강제성을 꼬집기 이전에 그 제도상의 모순점을 거론했다.

실례를 들어보자. 여태껏 국제대회에 앞서 나가는 大會요강에는 국기원 단증 소지자에 한해 출전선수의 자격을 규제해 두고 있지만 실제 열만큼 심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의문스럽다. 또한 자국내에 주재하는 한인師範은 協會에는 加入치 않고 국기원에 직접 개별적으로 단증을 신청 교부받는 사례는 協會의 권위는 물론 협회 발전에 거역되는 행위로 인정,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衆論이었다. 서독과 스페인의 경우는 이미 한인 사범 개인 자격으로는 국기원에 승단 신청

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이번 회의결과 ETU에서는 WTF에 각국 협회에서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둘째의 승급, 단급사 규정에서 ETU 회원국은 일원화된 심사규정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자면 한 도시의 A라는 한인사범은 <이런 式으로> 그리고 B사범은 <저런 式으로> 하는 不合理的하고 食傷한 한국인의 不美를 오랜 세월 동안 보고 느끼고 체험한 수련생은 누구나 그 사범의 人格을 점차로 의문시하게 되는 풍토 속에서 탈피하고자 함은 人之常情이겠다.

지난 4월 28일에서 5월 7일간 일시 귀국한 길에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방문했던 도장의 실태를 알아 본 결과 「이런 式…」 「저런 式…」의 非制度化가 아직도 宗主國에 마저 상존해 있었다. 서울 도道場에서는 初段 18級에서 1級제도를 두어 메달 실사를 보게 되니 영리에는 그저 그만이라며 대견해 했다. 그런가 하면 국기원공인승단은 먼저 실시케 하고 자기도장관승단은 뒤에 보게 해 그럼으로서 자기 권위(?)를 인정케 한다는 해괴망측한 사고方式의 사범도 만났었다. 그리고 급제도도 10급부터 1급, 어느 도장은 8급부터 1급제도, 띠에 있어서도 가지각색이라 함께 방문했던 외국인 수련생이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신형도복의 해외창구역할을 맡은 <태서통상>에서 해외사범계 보낸 공람에는 WTF공인題下 10급부터의 제도, 그리고 각 두급씩 띠의 색깔이 바뀐다는 소식이었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기관지인 「태권도」誌 「WORLD TAEKWONDO」誌를 통해 공신력있게 공고할 수 없었을까?

티끌 모아 태산 되듯 조그마한 일들부터 合理的으로 제도화하여 시행해야 함을 느꼈다. 館의 난립상태에서 오는 모순점을 시정키 위한 모색으로 판의 폐지, 통합도 좋았지만 얼마큼 당초의 계획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셋째로 국제심판원 자격은 WTF규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심판자격의 세부사항, 권한도 제정되어 있는 데 WTF는 분명히 그 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77년 시카고 제3회 세계대회, 국제심판강습회에서 참가한 몇몇 외국사람은 그 이수하는(교육받는) 과정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결승전 8체급의 주·부심을 맡아 본 사례가 있었다. ETU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야기시켜 그런 비합리적인 WTF의 처사는 도시 남득이 가질 않는다는 비난이었다. 해서 ETU에서도 ETU회원국 간의 각종 대회를 대비한 독자적인 국제심판원을 양성키로 가결 되었다.

나는 여기서 KTA WTF의 모순점을 몇 가지 실태로 들었음은 결코 비방의 화살을 던지자는 의도가 아니라 그런 실태로 인해 ETU가 점차로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는 杞憂에서다.

어떠한 法을 제정공포, 실시하기 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 어려움에 앞서 적당한 기간, 연구 검토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朝夕으로 변하는 행정은 결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W.T.F의 합리적인 제도의 규정과 그 원칙적인 운영방침이 어렵기만 하다.

우리고 이 모순을—

아직도 국내의 대회에서도 불상사가 야기되고 있음은 저으기 슬픈 일이다. 시카고 제3회 세계대회에서도 그리고 지난해 10월 뮌헨 제2회 구라파대회에서도 불미스런 행위가 코치를 맡은 한인 사범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누구든 자기팀의 우승을 바라지 않을 자가 있을까만 유독 한인사범은 사명감이 강해서인지 끝날 심판 판정에 불복하는 폭력행사가 다반사다.

정정당당하고 공명하게 승부를 겨루는 감투정신은 스포츠맨십이라 했는데 선수는 심판의 판정에 순종하는데, 코치가 유독 기성피성으로 경기장을 걸터하고 코치의 의자를 들어 뺨치고 하는 따위는 근절되어야 하겠다. 적어도 외국인의 양식으로는 한국 사람이 훌륭한 武藝태권도를 가르치고 경기규칙을 제정하고 그 제도 하에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결코 한국 사람이 그

무예를 그릇되게 하고 그 경기를 파괴함은 도시 남독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자란 식상한 수련생들이 이제는 자기 들끼리 조직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운영해 보고저 함이 비단 ETU만이 아닐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지나치게 武를 알세우지 말고 道로써 극기하고 이성을 잃지 말고 줄 때로는 손해 보는듯 人生을 긴 안목으로 보며 도담게 살 수는 없을까!

어느 때 보다도 이제 우리는 跆拳道 보급 보다 品位를 높여야 할 시기를 맞은 것이다. 무도 精神의 확고한 哲學을 통한 人格을 겸비한 次元 높은 「매너」로 우리는 신뢰받는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세계의 스포츠로 발돋움한 국기 태권도는 길은 뿌리를 내리고 있음은 사실이다. 봄이 오면

더 많은 알찬 生命을 얻기 爲해 묵은 가지는 정원사의 손에 의해 잘리워지듯 태권도의 발전에 저해되는 독소는 가차없이 척결되어야겠고, 반면 좋은 의견, 방안도 받아들이는 풍토가 아쉽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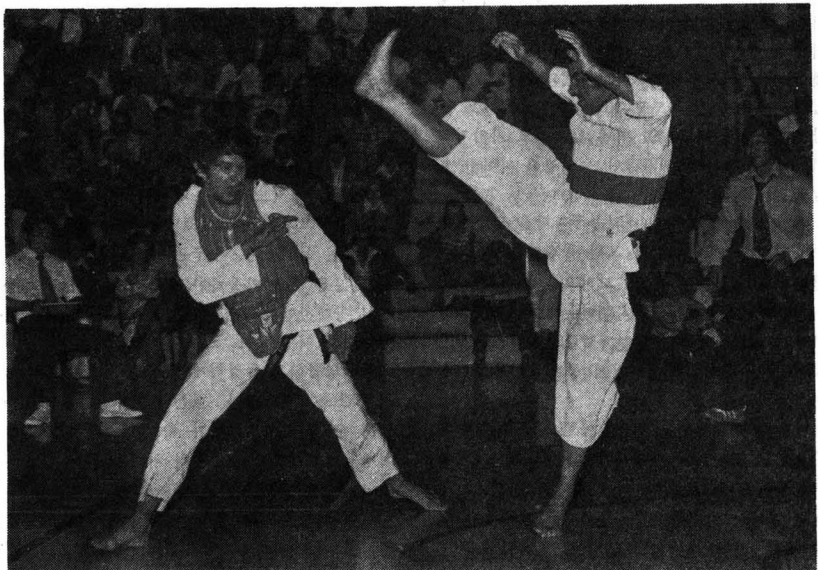
이제 기술의 평준화로 인한 종주국의 위협에는 일심동체가 되어 각고하며 연구하는 자세로서 과학적인 기술개발과 그에 따른 수련, 거기에 투철한 무도정신의 철학성이 병행되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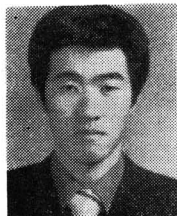
반면으로 KTA, WTF, 국기원도 三位一體가 되어 합리적인 행정면의 운영방침이 뒷받침되어 야만 존경받는 종주국의 전통과 脈을 유지하는 기본이 되고 나아가 약화된 해외사범을 구제하는 활력소가 될 것임을 굳게 믿는 바이다.

오늘도 철학잡린 下午의 散策길을 거닐며 기도하는 마음이다.

1979. 5. 12

(인스부룩에서)





격파에 대한 역학적 해설

崔 榮 鎬

- ◇…태권도의 3대 요소중의 하나인 격파는 온몸을 무기화한다는 점에서 이 무기(주먹, 손날, 발…◇
 ◇…등의 공격시 위력 즉 파괴력 다시말하여 힘을 말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도 막연히 단련만◇
 ◇…한다고 무조건 그 위력이 발휘된다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다. ……………◇
 ◇…본인은 27년간의 수련을 통한 개인의 수련연구 결과와 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격파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한다. 격파에도 주먹 손날 역손날 손끝 또는 앞차기 돌려차기등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선 몇가지 만을 선택하기로 한다. ……………◇

과학공식과 기초 해설

뉴턴의 제 2법칙(Newton's 2nd Law)

- (1) $F=ma$ 힘 $\begin{cases} F=\text{힘} \\ m=\text{무게} \\ a=\text{가속도} \end{cases}$
- (2) $M=mv$ $\begin{cases} M=\text{운동량} \\ m=\text{무게} \\ v=\text{속도} \end{cases}$
- (3) $v=\frac{dx}{dt}$ 속도
- (4) $a=\frac{dv}{dt}$ 가속도 $\begin{cases} a=\text{가속도} \\ dv=\text{속도 변화율} \\ dt=\text{시간 변화율} \end{cases}$
- (5) $Ek=\frac{1}{2}mv^2$ $\begin{cases} Ek=\text{운동에너지} \\ m=\text{중량} \\ v^2=\text{운동} \end{cases}$
- (6) $\epsilon=mgh$ $\begin{cases} \epsilon=\text{위치에너지} \\ g=\text{중력} \\ h=\text{높이} \end{cases}$
- (7) $g=980\text{cm} \times \frac{1}{2}$ 중력에 의한 가속도
 $\begin{cases} g=\text{중력} \\ t=\text{초(秒)} \end{cases}$
- (8) $S_t=\frac{F}{bc}$ 전단응력 $\begin{cases} S_t=\text{전단응력} \\ F=\text{힘} \\ bc=\text{단면} \end{cases}$
- (9) $Z=2mr$ $\begin{cases} Z=\text{원주} \\ m=\text{원주율} \\ r=\text{반경} \end{cases}$

시간분석

극히 짧은시간이 소요되므로 1초의 60분의 1의 시간을 1순간으로 정하고 시간단위는 「순간」을 기준으로 한다.

- A. 몸통주먹 공격법 : 5순간
 B. 손날 공격법 : 5순간

C. 앞차기 공격법 : 6순간

D. 공중 앞차기 : 20순간

수련정도에 따르는 속도분석

- A. 시간은 초를 기준으로 한다.
 B. 10년간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C. 정도는 주로 초단에서 5단을 기준으로 실

시한것

수기공격(1초간) 후기공격

- | | |
|-------------|------------|
| 1. 초단~6회 | 1. 초단~4회 |
| 2. 2단~7.5회 | 2. 2단~6회 |
| 3. 3단~10회 | 3. 3단~8회 |
| 4. 4단~11.5회 | 4. 4단~9.5회 |
| 5. 5단~12회 | 5. 5단~10회 |

동작때 인체 각도 거리분석

(동체허리거리쓰는 장면)

- A. 손날공격법
 각도~45° 거리~19,625cm 실체는 20cm
- B. 주먹공격법
 각도~67.5° 거리 29.4375cm 실체는 30cm
- C. 앞차기공격법
 각도~33.75° 거리~14.7185cm 실체는 15cm
- D. 공중앞차기 공격법
 각도 없음. (원심력작용) 거리~29.3cm
 실체는 30cm

원에 대한 설명

1. 원의지경...5cm (사람에게 넓이를 50cm로

보고 그의 10분지1의 길이

반경...2.5cm

2. 원주의 길이...15.7cm (공식 $l=2\pi r$ 에 의하여 $2 \times 2.5 \times 3.14 = 15.7$ cm)

3. 원의 자도 및 해당거리

A. 원...360°...해당거리...15.7cm

B. 반원...180°...해당거리...7.85cm

C. 원의 4분지 1...90°...해당거리 3.925cm

D. 원의 8분지 1...45°...해당거리 1.9625cm

E. 원의 16분지 1...22.5°...해당거리 0.98125cm

F. 원의 360분지 1...1°...해당거리 0.0436cm

4. 실질적인 사람의 어깨넓이를 50cm로 보고 편이상 그의 10분지 1인 5cm를 원의 직경으로 정한다.

동작 때 사용되는 체중신장의 분석

1. 동작 시 완전한 힘(F)이 발휘되는 체중진부를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장기간 수련한 자 외에는 불가능한 문제이므로 보편적인 60kg을 기준으로 한다.

2. 수련여하로는 체중의 절반(30kg)은 동작시 완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3. 여기에서는 역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중량(m)은 체중(60kg)의 절반(30kg)의 절반(15kg)으로 분할적용한다.

4. 동작할 때 사용되는 체중 또는 體長을 분류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중 60kg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무게)

A. 반체중 30kg (60kg÷2=30kg)

B. 頭部重量~6kg 절반~3kg

C. 兩腕重量~6kg~절반~3kg

D. 胴體重量~28kg~절반~14kg

E. 양다리중량~20kg~절반~10kg

(2) 몸길이(體長)

A. 팔길이(腕長)~60cm

B. 다리길이(脚長)~75cm

C. 발길이(足長)~15cm

D. 어깨넓이~50cm (일직선)

물질의 종류에 대한 강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질은 벽돌로하고 3단계로 분류한다. A 갑종 B 율종 C 병종

② 벽돌 3단계 종류의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갑종 벽돌 강도(최고강도) 100

B 율종 벽돌 강도(중간강도) 50

C 병종 벽돌 강도(최저강도) 10

파괴력(힘=F)의 기준제정

① 오른팔의 중량(m) C체중에서 한쪽 팔만의 체중 3kg

② 거리는 (x) 60cm (팔의 길이)

③ 가속도(a)는 16으로한다.

위의 기준에 의하여 힘 F의 기준을 계산하기로 한다.

공식(F=ma) 뉴톤의 제 2법칙에 의하여 F=16(a)×3(m)=48~공격최저의 힘(F)이 되므로 이힘(F=48)이 최저강도 즉 10의 물질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위의 기준에 의하여

공식 $S_t = \frac{F}{bc}$ 의 전단응력을 적용하여

S_t =전단응력

F=힘

bc=다면물질

위 공식에 의하여 격파에 성공하려면 F=힘을 증가하거나 bc=전단물질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단물질의 감소는 즉 부피를 감소하거나 강도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이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정한 물질을 파괴하려면 F=힘을 증가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격면적을 축소시켜 초점공격을 하는 원리밖에 없다는 이치다. 힘 F=48이 병종벽돌 한장을 파괴할 수 있는 힘에 해당한다면 동일한 물질로서 강도만 강한 즉 50의 율종 벽돌을 격파하려면 어느 정도의 힘=F이 필요함을 계산하여 보기로 한다.

1. 강도가 10에서 50으로 꼭 5배가 증가 하였으니까 힘 F도 48에서 5배(240)로 증가 시키지 않으면 파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손날공격에 대한 역학적 해설

1. 허리를 틀지 않고 한쪽 손만으로 손날공격

할 경우

A 시간 : 5순간

B 중량 : 이때 작용되는 중량(체중 m)은 한쪽 팔만의 중량(3kg)만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C 거리 : 이때 동작거리는 좌측 옆구리에서 우방몸통까지 거리 85cm로 국한된다.

2. 허리를 틀어 한쪽 손으로 손날공격할 경우

A 시간 : 5순간

B 중량 : 이때 작용하는 중량(m)은 허리를 통하여 15kg의 중량이 작용한다.

C 거리 : 이때 동작거리는 좌측 옆구리원위치 후방부터 우측 몸통까지간의 거리는 105cm로 한다.

D 허리 안틀때의 속도계산

공식

$$V = \frac{dx}{dt} \quad (d) \text{ 는 같은울이므로 무관함}$$

(t) 는 5순간

이고 허리를 안 틀 때는 속도가 17cm 21cm - 17cm = 4cm로 허리를 틀때가 안 틀때 보다 속

도가 4cm 증가하였으므로 공식 $a = \frac{dv}{dt}$ 에 의

하여 속도(V)의 증가는 가속도(a)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다 공식 $F = am$ 뉴턴의 제 2 법칙에 의하여

A 허리 안틀때의 경우

$$a = 17$$

$$m = 3$$

$$F = 17(a) \times 3(m) = 51 \quad F = 51$$

B. 허리를 경우

$$a = 21$$

$$m = 15$$

$$F = 21(a) \times 15(m) = 315 \quad F = 315$$

허리를 틀면 안 틀 때보다 6.02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실제 격판 분석

(1) 손날격파

A 물리학적 (力學) 분석에 의하여 손날동작의 가장 강한 힘(F)이 315라는 계산이 나온다.

B 격파대상물은 감중벽돌 (강도 100) 울중(강도 50) 병중(강도 10)으로 나뉘어 있다.

C 예로 병중벽돌 (강도 10)을 격파하는데 소요되는 힘(F)이 48이고 울중벽돌(강도 50)을 격파 하는데 소요되는 힘(F)이 240 감중벽돌(강도 100)을 격파하는데 소요되는 힘(F)이 480으로 나와 있다.

주 벽돌 (강도 1)을 파괴되는 힘 F 은 4.8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D 상기한 바에 의하여 결국 손날의 최강의 힘이 315로 나와 있으므로 병중벽돌은 무난히 파괴되고 즉 병중벽돌(강도 10)은 6배도 능히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울중벽돌(강도 50)도 1배는 능히 격파 할 수 있으나 가장 강한 감중벽돌(강도 100)은 격파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먹격파에 대한 분석

1. 공식 허리를틀지 않고 공격

시간 5순간

중량. 이때 작용하는 중량 한쪽 팔간의 중량 3kg으로 본다.

거리. 오른쪽 옆구리에서 몸통명치까지 팔길 이 60cm로 본다.

2. 허리 틀어 공격

중량. 이때 작용하는 중량은 허리를 통하여 15kg의 중량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거리. 우측 옆구리 원위치에서 허리를틀어 후방 35cm로 늘어나 95cm본다.

3. 허리 안 틀 때

$$V = \frac{dx}{dt} \quad d \text{ 는 같은 울이므로 무관함}$$

t 는 5순간

x 는 60cm

$$V = \frac{d60}{d5} = 12 \quad \text{속도는 12cm}$$

공식($F = am$) 뉴턴의 제 2 법칙

허리 안틀 때

$$a = 12$$

$$m = 3$$

$$F = 12(a) \times 3(m) = 36$$

(F) 36

4. 허리 틀어 공격

$$V = \frac{dx}{dt} \quad (d) \text{ 는 같은 울이므로 무관함}$$

(t) 는 5순간

(x) 는 95cm

$$V = \frac{d95}{d5} = 19 \text{속도는 } 19\text{cm}$$

공식 ($F=am$) 뉴턴의 제 2 법칙

허리틀 때

$$a=19$$

$$m=15$$

$$F=19(a) \times 15(m) = 285$$

(F) 285

주먹격파

1. 물리학적 (力學) 분석에 의하여 주먹 동작 때 가장 강한 힘(F)으로 285라는 계산이 나온다
2. 격파 대상물은 앞에서 열거한 손날과 동일함

3. 상기한 바에 의하여 결국 주먹 공격의 힘(F)이 285로 나왔으므로 병종벽돌은 무난히 파괴하고 즉 병종벽돌 5매도 능히 격파 할수 있다는 것이요 울종벽돌은 1매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강한 갑종벽돌(강도 100)은 1매도 격파 할수 없다는 결론이다.

상기한 바 지면 관계상 다른 격파공식은 상기한 손날 주먹 격파 공식대로 분석하면 될 줄로 안다.

총론

예를들어 병종벽돌 강도 10° 의 파괴력 즉 힘 $F48$ 을 보유 한다면 병종벽돌 10° 이하 것을 전부 파괴할 수 있다는 결론이요 240의 힘(F)을 가지면 울종벽돌 강도 50 이하의 것은 전부 파괴할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며 480의 힘(F)은 가장 강한 갑종벽돌 강도 100° 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상기한 점을 인간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이 공식 계산상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따라 기분에따라 요령 주먹의 강도 체중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이에 인간의 에너지가 영향력을 미치므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수련이 필요하며 인간의 인체는 수련을 쌓고 단련을 해도 뼈와 살결은 들이

나 쇠부처처럼 단단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점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다.

나개인의 생각과 27년 동안의 수련결과 상기 할점은 격파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충격시 발생하는 진동이 필요 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격파시 진동을 일어나게 하며 송판이나 벽돌 모든 접촉상부와 반대편하부에 다른 변화가 오는데 상반부는 쪼그라들고 하반부는 늘어난다.

하반부가 늘어나면서 강성(彈性)을 잃고 파괴된다.

용수철이 일정한 한도이상 늘어나며 탄성을 잃는 원리와 마찬가지로다.

송판의 경우는 1cm 정도

벽돌의 경우는 1mm 정도

늘어나며 쪼개지고 깨트려진다.





跆拳道人の 基礎寫眞研究

池 龍 熙

오늘날 Camera는 人間生活에 있어서 필수품으로 受用되고 있다. 또한 寫眞은 人類 歷史에 산 證人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生活藝術의 價値도 兼했기에 多方面에 功獻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一般的으로 寫眞이라고 하면 프로와 아마추어로 區分하여 생각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적인 아마추어, 다시 말해서 우리 跆拳道人の 취미 사진으로서 도움이 될수 있는 基礎 Camera 다루는 법에 對하여 말하려 한다.

“寫眞을 찍는다”라는 것, 즉 野外에서 또는 會議場, 結婚式場, 跆拳道 競技 등등을 記念하기 爲해서 촬영한다는 평범한 생각을 갖고 基礎 研究를 해보고자 한다. 病院에서의 X-ray 촬영 寫眞作家가 특수조명을 사용하면서 촬영하는 따위가 아닌 日常生活에 記念으로 즐겨 찍는 사진에 對하여 알아두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단히 할 수 있는 Camera 촬영법 즉 寫眞을 “찍는다”라고 할때 그냥 寫眞을 Camera가 찍혀 주는 것 보다는 잘 찍도록 노력하여 寫眞을 만든다는 精神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겠다.

똑같은 被寫體(사진에 찍혀 나올 물체)를 놓고도 촬영하는 方法과 다루기에 따라서 作品이 잘 나오고 못 나오게 되는 것이다.

같은 위치에 Camera를 고정시켜 놓고도 여러가지의 藝術寫眞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곧 寫眞 技術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技術的인 寫眞보다 더 重要的 것은 Camera를 쉽게 다룰 줄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다,

우리 跆拳道人은 누구나가 다같이 基礎的인 知識을 갖고 現代인의 멋을 더 많이 알도록 바라는 마음이다. 아무리 프로 사진사나 사진作家라고 하더라도 跆拳道를 모르면서 作品을 만들려고 한다면 잘 알고 있는 跆拳道人이 찍는것만 못한 作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사진은 우리가 必要로 하는 作品을 우리 손으로 멋지게 촬영해보자는 것이다.

카메라를 구하는 법

카메라는 價格이 비싼 것일 수록 전자 자동조절장치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러나 비싼 Camera만이 잘 나오고 싼 것은 잘못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면 몹시 잘못된 생각이다.

市中の 國產 Camera도 日製 Canon보다 더선명하고 더 잘 나오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外產의 高價는 자동을 첨가 시킨사치에 불과하기에 부득이 값비싼 Camera에 허영심을 갖을 必要的는 없는 것이다.

Camera 기초 연구

1. 필립 장치에 주의

보통 필립을 끼울때 파이프레이션(필립구멍)이 양쪽툼니에 정확히 물러서 들어가는 상태를 확인하고 뚜껑을 닫아야 안심하고 촬영을 할 수 있다.

2. 잡는 법

일정한 공식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편히 잡는 것이 제일 좋다. 무리 하게 잡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샷다를 누를 때 흔들림이 없게 얼굴에 밀착시켜야 한다.

《 교 양 》

한 손으로 다루는 것은 금물이다.

3. 노출 마춤

자동노출이 되지 않음 Camera는 노출표를 참고로 해서 숙달시키도록 한다.

자기가 촬영할 때마다 MEMO를 해서 남기,

시간, 거리, 조리개, 샷다스피드 등을 기재해서 사진이 나온 후 검토해보면 좋은 연구 자료가 된다. 이것이 익숙하면 목적조정이 가능하며 자동보다 더 사진이 잘 나올수 있다.

〈기본 노출 결정표〉

F치(조리개) 선택

ASA 80~160 샷다 125

피사체 \ 계절	가상				실				비			
	겨울	봄	가을	여름	겨울	봄	가을	여름	겨울	봄	가을	여름
밝은 피사체	11	16	22	8	11	16	5.6	8	11	4	5.6	8
보통 피사체	8	11	16	5.6	8	11	4	5.6	8	3.5	4	5.6
어두운 피사체	5.6	8	11	4	5.6	8	3.5	4	5.6	2.8	3.5	4

〈샷다의 계점〉

일 기	아주	참	호	비	어
속도	참	참	참	참	참
샷다 속도	125~250	60~125	30~60	15~30	5~15

〈조리개 계점〉

일 기	아주	참	호	비	어
(F치) 조리개	참	참	참	참	참
(F치) 조리개	11~16	8~11	5.6~8	5.6~4	4~2.8

4. 샷다 속도 맞추기

샷다 주위에 보면 60, 125, 500 등등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60이란 수치는 $\frac{1}{60}$ 초를 의미한다.

보통 $\frac{1}{125}$ 을 놓고 촬영하며 실내(스트로보)후래쉬 촬영때는 60에 놓고 촬영하면 된다 $\frac{1}{500}$ 에 놓고 날은 비행기를 촬영하면 선명하게 나온다. TV화면 촬영은 $\frac{1}{30}$ 이 좋다.

5. ASA (DIN)

필름의 감도를 표현 함인데 보통 100에 놓는 것이 정상 예이며 수치가 많을수록 감도가 예민하다.

※참고 ASA 400 필름의 이점은 실내 촬영시에 스트로보(후래쉬)없이 촬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도 20W 건구하나만 있으면 선명하게 찍을 수 있다.

국기원 실내에서 가장적격이다.

5. 샷다 속도 조정

조리개와 샷다스피드는 항상 상관되기에 위의 결정표를 참고해서 여러번 촬영 후 자기가 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샷다 스피드를 천천히→조리개닫음

Ⓑ 샷다 스피드를 빨리→조리개열음

A와 B는 서로 조화를 맞추는데 기술이 필요하다.

B 샷다란 촬영시 샷다를 누르면 조리개가 열리고 놓으면 닫히는 때이며 샷다를 누르고 오랜 후에 놓는 촬영은 밤거리의 자동차의 움직임 불빛 촬영이 좋다.

6. 촛점거리 맞추기

사진의 생명이기도 한 촛점 맞추기는 먼거리 부터 서서히 당겨오다가 피사체의 中心部分(ex 사람→입술)에 정확히 맞추어야만 선명하고 살아있는 作品을 얻을 수가 있다.

7. 構圖(구도)를 잡는법

그림에서나 寫眞에 있어서 構圖가 좋다는지 나쁘다는지 하는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화가의 자유에 따라 좋은 것만을 구상해서 넣을수 있으나 사진에서는 촬영사의 자유 의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흠이기 때문에 作家가 찍은 사진을 많이 보는데서 경험을 쌓을

수가 있다. 구도를 잘 잡는데서 사진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8. 샷다 누르는 방법

숨을 멈추고 Camera를 얼굴에 밀착시킨 자세에서 가만히 샷다를 누른다. 샷다에 신경을 쓰면 순간적인 떨림에 흔들리는 사진이 된다. 자주 연습이 필요하다.

◎ 일반적인 예 ◎

(a) 장애물 격파 촬영법

구도를 정해놓고 샷다스피드 $\frac{1}{500}$ 조리개를 평상보다 1단 더 열어놓고 촬영하면 좋다.

몸이 날아가는 모습을 정확히 잡고 뒷 배경이 흔들 작품을 원할때는 Camera도 날아가는 모습을 함께 따라가면서 동시에 샷다를 누르면 보기 좋은 사진을 얻을수 있다.

이런 촬영을 "팬닝"이라고도 한다. 팬닝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급히 움직여 따르면서 촬영하는데 타고 달리는 사람은 정확히 나오고 뒤에 구경꾼은 스쳐나오는 장면이기에 마치 따라뛰면서 찍은 느낌을 준다.

(b) 이중 촬영의 멋

하늘의 구름을 촬영하고 그 사진 위에 자기의 얼굴을 넣고 싶을때 또는 배기가 바람에 휘날림을 넣고 그 위에 자기가 도복을 입고 돌보이려 할때 먼저 1카트를 찍은 다음 Camera의 아랫부분에 누름 단추를 누르고 테바(필림 장진손

잡이)를 돌리면 다음 촬영시 샷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1카트에 2번 촬영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 할점은 테바를 돌릴때 먼저 누름단추를 깊숙히 누르고 천천히 돌려야만 틈니가 필립을 풀지 않고 제자리 거름뿜 한다. 만일 무리하게 다루면 필립이 밀려서 원하는 장면이 없으로 찍히는 수가 있다. 극기원 견경을 먼저 찍고 다음에 자기의 포즈를 가득히 담으면 좋은 작품을 얻는다.

(c) 건물 배경을 넣고 사람을 찍을 때

전체 건물을 넣고 사람을 촬영 하고저 할때는 먼저 건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Camera가 자리를 잡고 사람을 Camera 3~5m 앞에 세워 놓고 촬영하면 좋은 작품이 된다. 특히 외국 여행시에 기념으로 촬영할 때 꼭 필요한 방법이다. 이때 옆모습의 포즈가 더 좋으며 상반신 촬영은 안정감을 얻을수 있다. (가운데 사람울 세운은 구식입)

(d) 역광으로 작품을 만들 때

아침 햇살, 저녁 일몰 직전 겨투기 장면은 일품

(e) 점프 촬영의 作品

샷다스피드 $\frac{1}{500}$ 에 놓고 노출을 잘 맞춘 다음 地面에 最大限 가깝게 Camera가 位置하도써 누워서 쪼그려 앉아서) 한다음 찬스를 맞추어서 샷다를 누르면 멋진 공중낙하 공중 점프 장면울 얻을 수 있다.

주의 : 촬영금지구역 및 군사기지 주위에는 절대로 Camera를 휴대치 않음을 알아두자.



軍과 跆拳道

권 중 군

(육군 제6010부대 교관)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한번쯤은 보고, 또한 실제 운동에 몸을 담아 본 사람이 부지기수가 되는 만큼 태권도가 우리 체질에 맞는 운동으로 보편화 되었다 하겠다. 실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파견나가 우리 고유한 운동의 뛰어난 점을 과시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고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는 계도 진전할 것이 없었다. 여기에서 좀 더 범위를 좁혀 우리 군과 태권도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군 태권도의 발전과 실제 전투에서의 응용은 국방력에 크게 기여될 줄로 안다.

군에서는 실제 태권도가 단순히 교육의 한 과목으로 쉽게 판단해서인지 운동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지 않고 대하는 병사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 지도자의 창의와 열의있는 교육으로 이끌어 전군이 전원 유단자화라는 목표야래 거의 초단 이상은 만 것으로 들고 있다. 군에서는 신병으로 전입되면 사회에서 도장에 다녀 상당히 태권도를 알고 있는 병사도 있겠지만 몸에 완전히 익혀보지 못한 병사들이 대다수인데, 대개 태권도를 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왔다. 사실 이 병사들은 많이 보고, 들었고, 한번쯤은 하는동 마는동 했으니 자연히 싫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복을 통해서 몸에 맞게 습득시켜야 하므로 고충이 따르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본 계도에 올리려면 피교육자의 인내와 꾸준한 노력, 거기에 정신력을 가미해서 그래드 어느 정도 유단자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수련기간 중 각종 어려움을 겪

게 되는데 정신 집중을 하고 운동에 임하지 않으며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종종 보아 왔다.

예를 들어 앞차기를 주먹을 쥐지 않고 손을 펴고 막다가는 손가락을 다친다든가 화근에 성질로 대해 전우간에 우애를 깨뜨리는 수도 있다.

이런 것은 태권도를 수용하는 태도로는 너무나 부족하며 근본 의의에도 빛나가는 것이다. 우리 군은 시범 경기와 실제 국기원에서 배우는 배려로 승급내지는 승급시험을 맞을 기회도 일년에 서너회가 주어진다. 사실 태권도란 기본 운동이 쉬워서인지 아니면 하고저 하는 욕망이 없으실까 동작 하나 하나가 끊는 맛이 없고 무희들의 춤을 연상시킬 만큼 운동을 하는지 춤을 추는지 구분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이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릇된 판단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군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실적을 올려야 되고 단증은 따야하니 기왕 할 바야 화끈하게 해야 되겠다는 집념으로 대하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열 전우가 처음에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모르면 태권도를 하려고 노력한 댓가로 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승급 심사에 합격하다 보니 자연 승급 시험도 치르고 단증까지 소지하여야겠다는 충동은 충분히 가지리라. 그런 연유로 하나 둘 유단자가 되다 보니 군이 요구하는 어느 단계까지 유단자화가 된 것 같다. 여기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유의 태권도를 단지 교육이다 생각지 말고 돈을 투자하고서도 시간을 낼 수 없어 운동을 못하는 수가 많음을 상기해서 청춘기에 국방에 몸을 담아 몸과 마음을 수련하며 태권도란 좋은 운동으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음을 꼭

게 다형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유단자화 현황을 보면 우리 부대에서는 77년 까지만 해도 '단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대충대충 알고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느꼈다. 단지 혼자만의 견해였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임했으니 병사나가르치는 교육자나 사교방식 자체가 안이했던 것 같다. 그러나 78년 초부터 본래 이 운동을 하였고 여러 차례의 시범 경기와 참관으로 소질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던 훌륭한 선임하사의 지도로 3~4개월 열심히 연마한 결과 초여름에는 3~4급까지는 따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운동에 몰두했다. 사회에서와 같이 매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이 끝나고 휴식시간이나 일과 외의 시간까지 틈을 내서 하는 것이니 체계가 없었던 것은 이해하리라. 8월에 들어서 국기원에서 주최하는 승단시험에서 50%의 놀라운 합격율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이라는 개념에 열 전우가 초단을 따니까 너도 나도 충분하리라는 집념으로 추운 겨울에도 운동은 계속되었다. 100% 유단자화라는 목표가 달성되도록 말이다. 올해 들어서는 승단 시험이 초에 있어서 전과 같은 합격율은 아니지만 30%의 합격으로 우리 부대에서는 80%의 유단자화라고 남에게 몇몇히 내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력전우가 내가 품은 운동을 해야 익힐 수 있다는 건지아래 꾸준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러니 이만한 실력이면 막강한 국방력에도 태

권도가 한 몫을 하니깐 이것이 바로 도량 파괴에 잡는 이중의 효과를 올린 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적화망상의 꿈을 버리지 않는 복피가 선불리 이유를 넘어 보지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이유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그럼으로 해서 우리 선조가 독특한 창의력으로 만들어 전해 내려온 태권도의 면목을 어느 정도 지켜 세울 수가 있음에 손색이 없고, 우리가 이제 발전시키고 더 멀리 전파시키는게 사실 우리의 과제인데 틀림 없으니까, 또한 나라 안팎에서 그 근본 의지에 입각해서 수련하고 있으니 정신 수양에도 한몫을 함에 비추어 가일층 태권도를 빛낼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선조의 훌륭함도 새삼 재인식하여 오늘에 사는 우리나라 후배에게 주체의식의 결여를 안타까와 하는 이가 많은데 이런 의미에서 결여된 주체의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한층 다행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에 사는 현대인에게는 무엇이 있어서나 한 가지 내놓을 수 있는 특기가 있어야 하겠는데 운동에서는 특별히 태권도를 권하고 싶다. 이 운동은 어떤 불의의 습격으로 부터도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인 호신술까지 겸비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해서 너무 남용해서 현 사회의 근본체계에 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아야 하겠다. 이 모두가 태권도의 근본 정신이니까 말이다. 이상으로써 태권도와 근과의 관계를 대강이나마 살펴 보았다.

<社 告>

● 독자 원고 모집 ●

跆拳道誌를 꾸미는 데 독자의 原稿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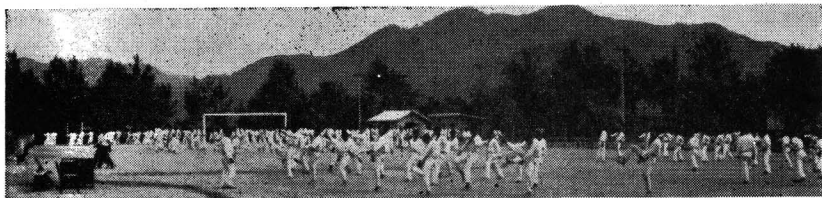
1. 종 류 : 論文(태권도 발전을 위한 內容 수필, 시, 수련기, 풍토, 단편소설)
2. 방 법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단 論文과 단편소설은 매수 제한 없음.)
3. 보내실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번지 대한태권도협회 편집실.

※ 벽지나 도리지방의 학교소식도 기다립니다.

태권도 유단화의 길

최 문 식
(육군 제7371부대 태권도부장)



젊음과 생명을 조국에 바쳐 복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된 조국을 이룩하기 위해 오늘도 육군 제7371부대 장병들은 태권도 훈련에 온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체력은 곧 국력이라고 했다. 병영에서 장병들의 체력은 전투력 측정의 척도라고 할만큼 그 중요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계절과 시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주어진 여건에 가장 알맞는 태권도를 선택, 강한 전투체력 연마에 여념이 없다. [일단 유사시 적보다 먼저 뛰어 먼저 쏘아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으며 국토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방위할 수 있다]는 개념하에 매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태권도를 실시 임전태세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앗” 하는 우렁찬 기압소리와 함께 견고한 벽돌이 마치 무우조각이 부서지듯 깨어져 버린다. “힘에는 힘으로 복귀와 대결 초전에 박살 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각오로 더 강인한 힘을 부단히 연마하고 있는 육군 제7371부대 장병은 오늘도 공인 3단 이상의 태권도 교관 지도하에 맨손으로 맹수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용솟음 치고 있다. 힘(力)과 기(氣)를 기르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心身)을 단련하고 전원 유단자화를 목표로 수련을 거듭하여 육군 제7371부대는 1년만에 부대원의 90%가 유단자로 양성 되었다. 지난해 잠정적으로 태권도 운영부를 구성하고 태권도부장이 구축이 되어 총무부, 기술지도부, 교육기획부를 설치하고 기초단계로 태권도정신과 필요성, 유단자 수칙 등을 제정하여 태권도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내규화한 후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먼저 1단계로 전원 태권도 도복을 구입 유단자가 되기까지 기초지식과 품세에 관한 참고 간행물인 “전투체력 지침서”를 발간 배부하여 전 장병이 숙지할 수 있도록 했고, 제2단계는 각 중대의 2단 이상 지도교관을 집체교육 시켜 태권도 품세를 통일 시켰으며 부대내에 전투체력장을 설치하여 능률적인 수련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1인 30분 이상[매주 수요일 오후 1시간 이상] 수련하고 있는데 전역전까지 초단 이상의 실기 실력을 획득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태권도야 말로 우리 군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강인한 투지와 진취적인 기상, 그리고 겸허하고 원만한 인간성을 완성하는데 절



〈일과후 자유시간의 실지훈련〉

대적인 무도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제 갓 입대 한 신병들이 자유시간을 이용, 선임병으로 부터 병아리 같은 체구를 단련 시키고 있을 때, 태권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느껴진다.

아울러 당 부대에서는 태권도 붐을 조성키 위해 냉온수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목욕탕과 샤워 시설 등으로 불편없이 자신의 기량을 백분 발휘토록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격파술을 단련, 언제 어느 때라도 복귀군을 일격에 격멸시킬 수 있는 확고한 사명감 속에 오늘도 전력 증강에 값진 땀을 흘리고 있다.

계간 태권도지 구독안내

날로 벌어가는 태권도는 세계를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권도지 애독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 회를 거듭할 수록 발행 부수가 늘어나는 기쁜 소식을 애독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태권도지 구독을 문의하시는 많은 애독자를 위하여 정기구독 신청을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이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낼곳 : 우편번호 100

서울 중구 무교동 19 대한 태권도 협회 태권도지 구독담당자 앞.

1 년 간 구 독 료	1,240원(송료 포함) 국내
-------------	------------------

.....절.....취.....선.....

No _____

주 소			우편번호	
성 명		구독구분		
<p>※ 1. 정자로 정확히 명기할 것. 2. 구독분에는 1년간과 6개월을 정확히 구분하여 써 넣을 것. 3. 구독료는 소액환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p>				

태권도의 요람

유 충 일

1974년은 우리 태권도의 도약의 해라고 일컬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향한 최대의 경의적인 해인 것이기도 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김운용 총재께서는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어느나라 국기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계적으로 그 우의권을 장악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1978년과 1979년도의 태권도 협회의 사업계획을 보면 국기원 탄생 이후 최고의 예산과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며 많은 세계적 규모의 대회와 해외 각계 각층의 인사 초청등 국제적 스포즈로 큰 장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200만 태권도인과 국기원 그리고 협회의 삼위일체된 노력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입니다. 또한 크고 작은 국제 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바 느낀 것은 국기원이 세계적인 태권도 수련장 대회 경기장 선수훈련장 지도자 교육장으로는 다소 협소한 느낌을 준다는 점 감출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순박한 이땅의 배달민족에게서 잉태되어 전래된 우리고유의 국기 태권도가 이제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한 때문일 것입니다. 성역화란 어구가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200만 태권도 인력은 우리 한반도 현역 예비역을 합친 인력과 대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권무술과 스포츠 인구의 저력은 가히 세계 으뜸이요 국력의 대자원입니다.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신비한 우주의 운기를 제 일면저 맡아 백의의 민족 단전에 힘을 넣어주는 영원한 자랑이요 문화의 유산인 세계적인 태권도 80년대는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자손만대에 심어주고 남겨줄 역사적인 사명감 앞에 우리는 엄숙히 일하며 뛰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속의 후손들에게 길이 남겨야 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태권도 인들이여! 우리를 아껴주는 모든 사람들이여!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다 함께 연구하여 봅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재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 여러분! 협소한 국기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개인 재벌들도 몇십만평내지는 수백만평의 사유림과 농경지를 사들이 골프장이다, 리크레이션 시설이다, 별장을 건립하는 이때 우리 세계 태권도인들이 설 땅은 어디 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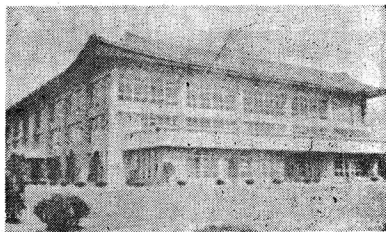
한라산과 백두산의 푸른 정기를 이어받은 태백의 증추로부터 뿜어 나온 경기, 광주, 산맥 일원에 우리의 연두장을 만들수는 없을까요?

80년대초에 태권도 요람인 국기원을 100만평 이상의 산림과 농경지를 확보하여 대자연의 경관을 손상치 말고 최대한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푸른 대자연에 태극 1장에서 태극 8장 유단자형 고려품세에서 한수 형까지의 18개코스에 동양식 미술과 예술이 담긴 대수련장을 건립하고 하천과 관목사이에 야외 대수련장 등을 정지하여 놓고 태권도 기술 기량 연구소, 이론 정립기관, 세계태권도 통신센터와 기관지 발행소, 태권도 스포츠와 현대무기 조작연결, 한국적 동양철학에 기초를 둔 정신교육원과 화랑 5계+태권도 이론정립등 이상의 각급 기관을 두어 세계 태권도인들을 지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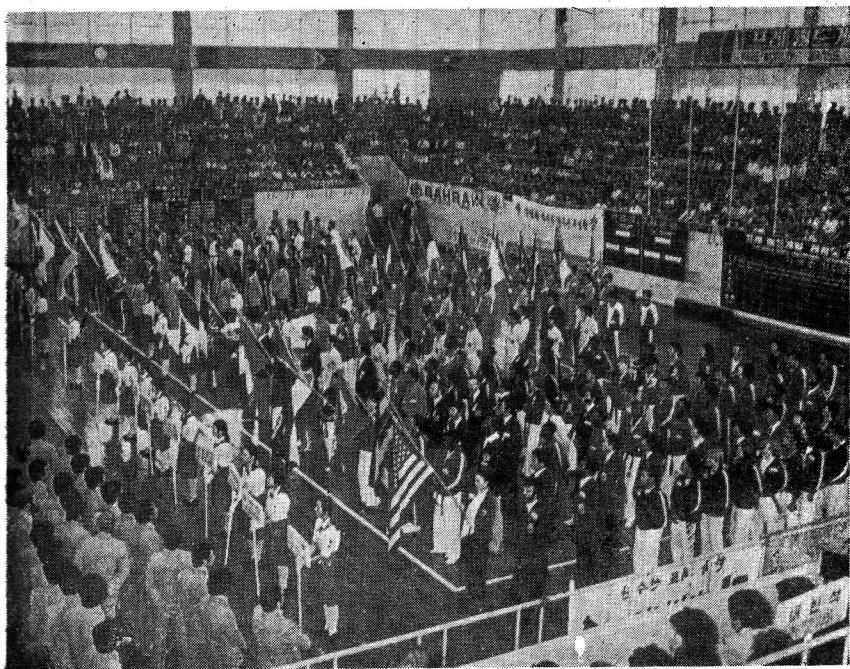
대자연 속에서 4계절의 정확한 이치와 그섭리에 따라 우리는 심신의 수련에 직접적 체험을 하여가며 비바람에 가는 즐거의 비이삭이 견디어가는 것과 유연한 강의 흐름속에 원대한 힘이 있고, 곡물이 모여 큰 힘을 내듯이 이러한 대자연의 무궁무진한 길리를 태극 품세에 융화해 가며 기량을 터득할 수 있는 수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어떻게 이루워야 할 것인가 그것은 물론 단계적인 계획과 200만 태권도인들의 협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성역 공사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기원 김운용 총재님을 필두로하여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언론 예술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총망라한 가칭 「국기원 대성역화 준비 위원회」를 받기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80년 대가 되기 전에 청사진화 시켜서 80년 대초에는 대 성역이 이루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장원 속의 태권도 요람은 관광단지 못지 않게 관광 자원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제 세계는 항공 교통의 발달로 세계 태권도 선수자들의 성역 순례자는 앞으로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단한 용단이 있으시기를 태권도인들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국기원 전경〉



〈프레울드게임의 입장식이 거행되는 국기원 실내광경〉

제26기 지도자 교육 수료



第26期 指導者 教育 終了 紀念 1971.6.22

제26기 지도자 교육 합격자 명단

순	번	성	명	자격증 번호	20	김	장	일	3516	40	원	점	조	3536
1		김	달호	3497	21	박	홍태		3517	41	최	재현		3537
2		설	국만	3498	22	김	민환		3518	42	박	재영		3538
3		강	대익	3499	23	김	정철		3519	43	이	기해		3539
4		임	인백	3500	24	이	규점		3520	44	나	규성		3540
5		김	창도	3501	25	이	현재		3521	45	손	동국		3541
6		김	용록	3502	26	박	종명		3522	46	이	우룡		3542
7		곽	기승	3503	27	전	제일		3523	47	최	대응		3543
8		왕	종윤	3504	28	신	준규		3524	48	김	영인		3544
9		이	병원	3505	29	김	정태		3525	49	김	학근		3545
10		김	안자	3506	30	이	만수		3526	50	한	상훈		3546
11		임	은	3507	31	장	영암		3527	51	신	동명		3547
12		문	현석	3508	32	박	문수		3528	52	이	화현		3548
13		정	연주	3509	33	신	상은		3529	53	김	응탁		3549
14		김	종철	3510	34	강	대현		3530	54	심	우춘		3550
15		정	주식	3511	35	이	영기		3531	55	최	태암		3551
16		정	기경	3512	36	이	귀환		3532	56	최	재혁		3552
17		서	진석	3513	37	박	현수		3533	57	도	기성		3553
18		김	두천	3514	38	김	광석		3534	58	김	창석		3554
19		박	한구	3515	39	강	용수		3535	59	김	순억		3555

인천 체육 전문대학교



“하나 둘” “하나 둘”

가랑게 그늘린 긴장한 얼굴에 붉은 땀방울이 맺힌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차거운 새벽 공기를 뚝뚝 마시며 김 호재 감독과 함께 구보하는 250명 태권도 부원들의 기상은 하늘을 찌를듯한 패기에 충만해 있다.

1973년 개교 이래로 어느새 만 9년이 되어오는 오늘날까지 술한 회비와 전적을 아로 새기며 묵묵히 커가고 있는 인천체육전문대학교 태권도 부원들은 주 전공인 태권도수업의에 각종 구기 및 경기·투기종목을 통해 기본체력을 익히며 선수로서의 모든 요소를 갖춰 나가는 데 전국 각처에서 대망의 꿈을 안고 모인 유능한 선수들이 한마음이 되어 호흡을 같이하며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인내로 수련에 임해온 결과 다음과 같은 전적을 올렸다.

1973년 제 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에서 유

영합·이 선엽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시키고 1974년 대통령배 선수권대회에서는 인천체전 A팀 B팀 두팀이 출전하여 종합 1위와 3위를 석권하여 체육전문학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1975년 제 2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페터급의 이 계승, 라이트급의 유 영합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하였고 같은 해 제 2회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는 중기부에서 8체급 중 5체급(최 재구·황병재·김중기·이경상·옥재호)을 석권하여 대학태권도의 하일라이트를 장식하여 많은 태권도인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제 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국가대표 박 원선수 및 최재구·정영인·이경상·오유열 등의 대표선수와 제 1회 프랭크드제임의 국가대표 박 수복선수 등 수많은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여 국기 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침 술 학

한 광 수
(국방부제육담당·중령)

○ 한방제약과 침구의학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알고 닦고 연구하여 동양인 중에 특히 한국인들의 건강관리에 그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민족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실시한 침술이라 함은 병증세에 따라 자침하는 방법, 침의 선택으로 구분되나 어느것을 막론하고 생체반응을 일으켜 생체의 변조를 교정시키므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서기 1929년 함경북도 웅기군 송편면에서 석기시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기침과 끝기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침술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민족이 알고 닦아 지금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74년도에 경제사절단으로서 중증지방 순회시 침술로서 많은 시술을 통하여 한국을 소개하였으며 더욱이 현대의학에서도 수술을 하여도 완치가 곤란하다는 디스크(Disk)를 순환방으로만 치료, 완쾌하여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았고 신경성은 침술로서만 시술이 가능하다고 볼 때 우리 태권도인에게는 더욱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겨루기, 호신술등을 통한 순간적 부주의로 탈골 신경교정등은 바로 치료가 가능하며 손쉽게 누구나 자침하여 습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에 지면을 통하여 자침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나열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여기며 이곳에 소개하는 침술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제 1 장 침구학의 유래와 사용법

제 1 절 침술학의 개요

1. 침술학의 이해

서양요법과 동양요법의 차이점

서양의학	동양의학
------	------

- | | |
|---------------------|--------------|
| 1. 예방적치료 및 수
술요법 | 1. 간편하고 경제적 |
| 2. 장기적 양약복용 | 2. 습관성과 부작용 |
| 3. 습관성 부작용 | 3. 치료효과가 광범위 |
| 4. 신경계 질환에 특효 | |

2. 문헌에 의한 관찰

- ①편자(BC 407~310): 축추전국시대 침과 약을 병용치료 死境의 환자치료
- ②화타: 한방의과의사麻沸散(復方藥)을 이용 침마취로 手術

- ③황보일(215~AD): 황제 갑을경의 저자 증년에 풍비증의 병에 감염되어 치료키 위해 침구학을 연구

- ④왕유일(1026 AD): 한림의관·고대명당기혈 경락기상설을 근거 최초 銅人주조제작. 후세 침술학연구에 중요한 역할.

- ⑤골백인(303 AD): 금탄순경을 기반으로 하여 십사경발휘저자 후세 경락연구의 일익

- ⑥이시진(1518~1593 AD): 본초강목에 해당하는 기경팔맥에 대한연구 본초학중에도 경락설의 중요함을 강조

- ⑦허준(1613 AD): 동의보감著者 침술치료의 비중이 많다.

- ⑧허임(1644 AD): 침술학처방 임상면에 도움

- ⑨사암도인: 침구요결오행설에 입각한 우리 특유의 침술치료법

※침술의 유래

사적근거 : 석기시대 사용 석기침(단 4262년 서기 1929년) 함경북도 응기군 송평면 발굴 석기침, 골기침 현재 국립박물관에 소장

2. 침술의 의의

①병증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점을 선택 체표에 시침하여 생체반응을 일으켜 생체의 변조를 교정하여 질병을 치료

②보건예방치료에 널리응용(정신적인 자극, 육체적인 고통에 의한 신경계, 순환계의 병상에 대하여 특효)

3. 신 침술의 특성

기혈의 부조를 동양의학적인 진단법으로 근대의학적인 제검사, 병명진단법등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진단하여 신체에 자극을 주어 분비혈행을 정확히시켜 치료하는 자극치료법

4. 침과 구(灸)<상호장단점보완>

침 : 속효적이나 일반적(급성병)

구 : 완속적이나 지속적(만성병)

체질에 따라 치료방법 선택하여 병행하여 사용

5. 타 치료법과의 관련

- 1) 침술은 한방치료를 병용
- 2) 긴급手術은 외과적 방법으로 치료 또한 식이요법. 기본전환 등 증상에 따른 치료
- 3) 지압법, 안마법, 골절법등 혼용

6. 침술의 습득방법

- 1) 침의 사용법 실제습득
- 2) 병증상에 따른 치료점 취(取)하는 판정 방법 습득
- 3) 경락과 경혈을 의우고 실제 인체의 부위에 금침(禁鍼) 사혈, 지침, 사침, 횡침 요령 습득
- 4) 이론과 실기병행연구

제 2 절 자침법

1. 침술의 일반지식

①鍼

②灸

③藥의 순서로 효과

※침의 연혁 { ①석기침 ②골기침 ③죽기침
④철기침 ⑤금침 ⑥은침
⑦백동침

1) 침의 종류

호침, 대침, 장침, 삼능침, 스프링삼능침, 피침, 봉침, 원침, 피부침

2) 침의 자입각도

①직자(直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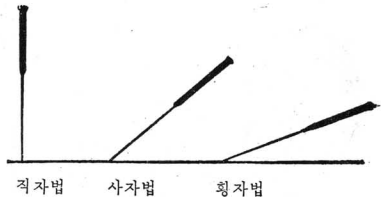
침체와 피부의 각도 90°

②사자(斜刺)

침체와 피부의 각도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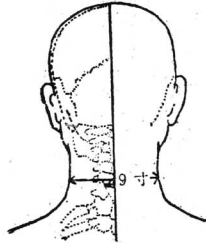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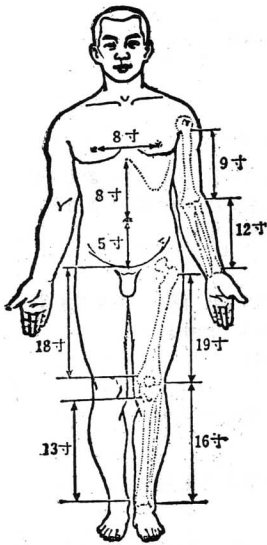
③횡자(橫刺)

침체와 피부의 각도 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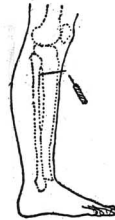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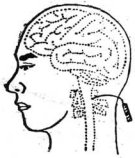
1) 골도법

- ①앞이마 머리돌는 곳에서 부터 뒷머리 난곳 까지 12寸
- ②앞눈섭사이에서 앞이마 머리돌는때까지 3寸
- ③뒷머리 난곳부터 대추뼈까지 3寸
- ④양 젖꼭지사이 8寸
- ⑤명치뼈에서 배꼽까지 8寸



- ⑥ 배꼽에서 낭심위 볼두
덩이 뼈위까지 5寸
- ⑦ 거드랑앞 주름선에서
손목주름 끝까지 12
寸
- ⑧ 팔꿈치 주름선에서 손
목주름끝까지 12寸
- ⑨ 대퇴골두에서 무릎관
절 중심부까지 1寸 3
分
- ⑩ 낭심위 볼두덩이뼈위
에서 무릎의 종지부뼈
위까지 1寸 8分
- ⑪ 허벅지 뒷주름에서 오
금 및 주름까지 1寸 3
分
- ⑫ 오금및 주름에서 바
갈복숭아 뼈위까지 1
寸 5分
- ⑬ 바갈복숭아뼈 상봉에
서 발바닥까지 3寸

2. 골척법(骨尺法)



3. 지량법(指量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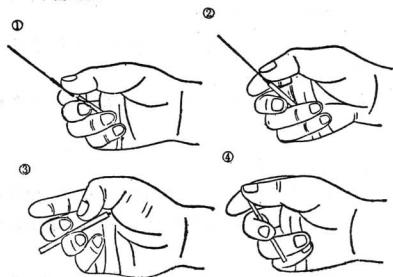


5. 침의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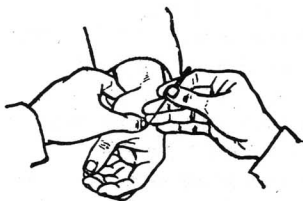
1) 연침법

2) 관침법

① 석수삽관법



② 편수삽관법



3) 압수

- ① 압수압
- ② 상하압
- ③ 고정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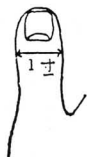
4) 자침 부유연법

- ① 진유연법
- ② 후유연법
- ③ 자침 부유연법의 요령

6. 압수의 형태

1) 보통의 압수형

2) 압수의 작용



① 현대적의의

7. 취혈전후 자침 부유연성을 행한다.
- 나. 침제침끝의 다지고정
- 다. 피부긴장도를 자입자법도움
- 르. 환자의 급동(急動) 자입자감 감수 기능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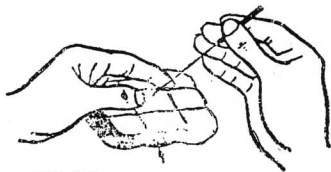
3) 자침 방법

- ① 폐속진침법
- ② 진침법
- ③ 조립진침법
- ④ 운침
- ⑤ 출침

⑥ 투침

7. 지력(指力)의 연습

얇은 휴지 4~6매 겹쳐서 속에다 수을 넣고 실로 동여매서 비누만한 것을 만들어 사용. 기억의 숙련은 병상의 치료에도 영향



8. 자침시간

- 1) 급성병 : 매일 1회 시침 10회. 치료기간 쉬는 시간 3~7일
 - 2) 만성병 : 1~3회 1회 혹은 매주 3회 10회 치료기 7일간 쉬는시간
- 보자법(補刺法) : 서서히 자침하여 서서히 뺀다(기를 보호하여 주는 방법)
 - 사자법(瀉刺法) : 기를 약하게 하는 방법
 - 속자속발(速進速拔) : 빠르게 자침하여 빨리 뺀다

9. 자침(刺針)의 기법

- 1) 단자술(單刺術) : 약자극을 목지
- 2) 작탐술(雀術) : 참새가 모이를 쪼아 먹는것 처럼 상하로 강자극 또는 약자극
- 3) 간혈술(間敷術) : 사이를 두고 시침강자극 <혈관확장, 근육이완, 신경의 흥분, 성진정>

- 4) 치침술(置鍼術) : 쇠면술, 혈행불순병증, 흥분진정
- 5) 부자극법(副刺戟法) : 침관 또는 지두(指頭)로서 툇기고 두들기고 누르고 진전 강자극 발침관란시
- 6) 차지타법(次指打法) : 강자극, 발침관란시
- 7) 호흡법(呼吸法) : 호흡에 따라 진입(혈관확장, 근육이완)
- 8) 내조술(內調術) : 침관으로 침병을 두들겨서 진전혈관 근육수축
- 9) 자침전향법(刺鍼轉向法) : 침의 방향 바날 때 제지(制止) 작용

제 3 절 시침전의 준비작용

1. 수지(手指)의 소독 : 구레소류
2. 체위 및 피부소독 : 75% 알콜
3. 침의 검사 및 소독
 - ①장기, 심장, 간장, 비장, 신장주의
 - ②임부(妊婦)는 복부나 합곡(合谷). 강한혈에 시침하면 안된다.
 - ③급통부통증환자, 시침후에 통증 계속되면 의원의 진료요청
 - ④노인, 쇠약자, 긴장된 초진환자에게 강자극 회피
 - ⑤파로, 기아환자는 현훈증을 일으키기 쉽다
 - ⑥심, 폐, 비장 중요한 장기부분은 자침하거나 작탁등은 부적당
 - ⑦유침중 몸을 움직이거나 鍼에 흡이 있거나 하면 절침 가능성
 - ⑧경혈과 해부학적 관계 숙지
 - ㉠안전도 ㉡부작용 ㉢효과적
4. 자침후 의외의 부작용이 났을 때
 - 1) 현훈
 - ②용천 ㉠백회 ㉡수구 ㉢족삼리 ㉣족빈
 - 2) 만침 : 침의 구부러진 방향으로 발침
 - 3) 체침 : 체침 부근에 또다른 침을 삽하좌우로

한하다

- 4) 절침 : 핀셋으로 제거 X선투시 의과적수술
5. 침의 보존법
 - 1) 수리하여 보존
 - 2) 형정 솜으로 문질러 말려서 보존(습기와 녹의 발생을 방지)
 - 3) 솜이나 부드러운 형겅으로 침끝의 파손방지
6. 침의 수리법
 - 1) 수지법 : 손의 무지(拇指)와 차지(次指)간으로 침구에서 침끝으로 내리훑으면서 비빈다
 - 2) 연마법 : 예리한것, 무뚝뚝한것, 고운 페이퍼 또는 솜뿔에 갈아쓴다

제 4 절 치료점의 검출법

1. 경혈과 치료점(경락도속지)
2. 반응점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점
 - 1) 압통 : 지압에 의해 나타나는 통점
 - 2) 경결(硬結) : 촉감이 적은 것(中心) 클 경우<주위의 경계부위>
 - 3) 함하(陷下) :陷凹한 부분촉지
3. 극한성의 피부이상
 - 1) 부종(浮腫) : 일혈(溢血)이 고인 것처럼 감지(感知)
 - 2) 지각이상(知覺異常) : 지각과인 또는 마비
 - 3) 감각이상(感覺異常) : 열감 혹은 냉감 및 비감(痺感)
 - 4) 건습(乾濕)
 - 5) 팽릉(膨隆)
 - 6) 구진(丘疹)
4. 치료법의 개설
 - 1) 대증치료 : 환부에 직접시술(右側이 患하면 在右 左側을 患하면 在右)

<다음호에 계속>

만남과 영혼과 사랑

전 영 칠
(건배 입학 3)

감정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느낌이다. 물론 개개인의 성격과 취향에 따라 감정의 색깔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느낌——이 말이 실은 세상에서 얼마나 구속받고 있는 말일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사는 것이라 말하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세상 살아가는 방편으로 불리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들은 살아가는 과정 도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얼마나 적당한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있는 그대로의 삶이 주는 생활면의 불리함과 연약성은 날카로운 원시적인 계곡의 돌보다는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조약돌의 사상을 배우게 한다. 적당한 감정이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낸다는 것——오히려, 그때야 당신은 이 말이 품고 있는 현실성의 무모함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감정이란 고독한 자가 입는 단출한 의상이다. 정서는 홀로있는 시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먹고있는 영혼의 비타민이다. 감정이 있는 정서란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감정이란 행복과 무감각이 지배하는 나이는 스페어에 반발하는 미약한 그러나, 영원히 타오르는 불빛——생명——그 자체다.

Q라는 여자가 있었다. 「Feeling is everyth-

ing」이라고 헨리밀러는 감각을 인생 가치서열의 첫번째로 두고 있지만, 굳이 그런 거창한 명귀를 빌지 않더라도 그녀는 느낀 그대로의 감정과 감각을 사랑했다.

귀밀에 찰랑거리는 귀거리나 실같이 가는 선으로 이어진 붉고 투명한 모조 사파이어 목걸이를 차고 다녔다. 장식이란 지나치면 천해보이지만 그녀에게는 그런 장식들이 값파는 상관 없이 잘 어울렸다. 그녀는 슝틸과도 같은 부승부승한 머리결을 하고 깃이 넓은 코우트를 걸치고 다녔다. 다방이나 경양식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이라도 나오면 그녀는 고개를 까닥거리며 몸으로 음악을 듣고(섭취하고) 있었고 그때면 그녀의 눈앞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진 코일같은 머리칼 사이로 불안정한듯한 것이있는 두 눈이 비쳐 보이곤 했다.

그랬다. 그녀는 고독을 사랑하였고 고독한 감정의 언어들을 눈으로 표현해낼 줄 알았다. 그녀는 머리 끝과 발끝까지 그대로 하나의 감각덩어리였다.

그녀는 고독을 입을 사용하지 않고도 두 눈과 얼굴표정, 어깨로 할줄 아는 신통력—요즈음 같이 매마른 무감정의 시대에는 그것은 하나의 신통력이었다——을 가지고 있었다.

감정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가장 쉬운 것이다. 느낌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면 그 뿐이다.

나는 Q양의 감정을 사랑함을 사랑한다. Q양의 감정에 깃든 영혼을 사랑한다.

그녀는 슬플 때 슬플줄 알았고, 웃을 때 웃을 줄 알았고, 고독할 때 고독할 줄 알았다. 이 어른의 어린애 다음! 축복 받을 일이 아닌가.

나는 생활에 쫓기고 부대끼면서도 그녀의 두 눈에 찰랑거리고 얼굴에 썩어져 있는 언어들을 읽어내기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잔 가득 넘치는 맥주의 거품을 바라보면서 Q양에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면 어떨까. 가령, 한 밤중에 아프리카의 상아해안이라든지 서유럽, 지중해 혹은 뉴욕기니아 서안을 향행하고 있는 여객선 갑판 위에서 내 과거의 흔적이 박혀있는 편지라든가 녹

음테이프를 들고 있는 경우

그녀는 짓게 찰랑거리는 두 눈으로 대답할 것이다. 아무런 언어의 남용 없이도.

사랑의 만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들은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세기의 연인들이다. 물론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인물이란 할지라도.

두 명문가문에서 태어난 그들 두 연인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극적으로, 참으로 극적으로 사랑을 불사른다.

사랑이라는 힘은 이들 두 연인에게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한다. 사랑의 힘은 가히 죽음까지도 초월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끊어 주었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그들은 천국 가서도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열렬히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헌데 로미오는 줄리엣이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다. 줄리엣은 줄리엣대로 로미오 없는 줄리엣이라면 아무런 매력이 없다. 그들은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이 결합한 소금처럼 강력히 이온결합으로의 갯쉬를 위해 한 목숨 버려야 한다. 드라마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연인들의 교과서요 징표이자 고전이다. 사랑을 위해서 목숨도 불사, 온몸을 불태우는 순수한 사랑.

세인(世人)들은 그들에 열광한다. 갈채한다. 숭고한 사랑이었다고. 영원한 연인의 갈길이었다고. 거창한 문귀의 나열, 나열, 나열……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으로 결말을 맺지 않고 그들의 카타스트로피를 좀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살려보자.

둘이 눈이 맞았다. 도망치는 것이다. 한 10년 잠적해 있다가 아이를 세명 정도 거느리고 양가 집을 찾아가면 아, 어찌 이들 가족을 모른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학부모된 중년의 줄리엣 숨어 살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골짜기로 숨어버린 로미오.

그러나 이런 드라마는 관객을 잡지 못한다. 한결같이 사랑은 순수하고 교상해야 하니까.

불쌍하게도 그러므로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어 주어야」 한다. 도망쳐서는 안된다. 소위 사랑의 승리를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관객들의 드라마를 위해서.

이 두 연인은 사실은 관객들에게 사로잡힌 프로들이다. 그들은 관객들의 횡포에 숨들릴 새도 없이 돌단의 사랑을 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만의 공식을 위해 온몸으로 증명해야만 한다.

아——그들은 운명에 처형되는게 아니라 관객들에 처형되는 것이다.

예를 멀리서만 찾지 말고 이 땅에서도 찾아보자.

성춘향과 이몽룡.

이들 두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성인군자는 물론 남녀노소 불분하고 「암, 그래야지」 하는 마음부터 앞선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데 비해 성춘향과 이몽룡은 해피엔드로 끝난다. 그들은 그 당시는 피임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니까 아이들을 한 10명 정도는 출중이 낳고 살 것이다. 성춘향은 아이들의 교육과 남편의 건강을 위해 500만원 짜리 계를 들었음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이몽룡이가 반역죄로 몰려 귀양가 죽고 성춘향이와 그의 식솔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지도 모른다. 남의 집 종살이로 겨우 연명하는 중년 나이의 성춘향이의 입가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는 때, 이렇게 많았는 때 라는 팔자타령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들 둘의 유명한 러브스토리나 온 장안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수 많은 선남선녀의 성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 많던 군중들은 지금 이모양 이꼴이 된 성춘향을 알아 주거나 할 것인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동원해 보도록 하자. 그녀는 문간방지기 훈예비 종살이의 연인과 동정으로 험한 종살이의 초년을 넘긴다. 그러다가 늙으면 소용없어. 에라, 단 한번 뿐인 인생, 어찌구 하며 춘향은 그 문간방 마흔 다섯살 먹은 훈예비와 새혼인을 할런지도 모른다.

아, 그래서 다시 없는 정철의 상경, 한국의이 상적 여인상 성춘향은 재혼했다!

그러나 성급히 당신들은 인생의 허무를 느낄 필요는 없다.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것이니까.

과우지간 성준향과 이몽룡이가 어떻게 어떻게 한끝에 맺어져서 행복하게 살았노라는 대목으로 끝나서 찬탄다행이지 속준향전은 사실 별볼일 아닌 내용일게 뻔하다.

사랑은 젊었을 때!

사랑은 결합까지지만!

이런 문구에 관중들은 현혹한다. 그 다음 어떻게 살았노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의 결합을 마음조리며 바라보던 것 만큼이나 그들의 결합 후의 생활에는 도피한다.

실로 성준향과 이몽룡이는 가정용 가진 후 이미 스타덤에 오른 자신들 러브스토리의 부담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은 꿈도 꾸지 못할런지도 모른다. 또한 로미오와 줄리엣은 천국가서도 사랑의 드라마를 재탕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승에서 관객들에 시달려 아주 그 하나의 드라마로 굳어져버린 까닭에 그들은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이기 때문에 극적인 사랑을 나누고 또한 죽지 않으면 이미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이들에게 파혼의 자유를 주자. 그들은 고정된 드라마는 창살없는 감옥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당신들이여, 이몽룡과 성준향에게도 이혼의 자유를 주자. 그들은 저승에서 울고 있지 않은가 그들도 인간이고 싶은거다.

만남의 의미

남녀간의 만남—이것은 하나나 둘을 세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만남이란.

Y양은 소설을 쓰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이미지만 호주머니 어딘가에 구겨진 원고지 조각을 가득 넣고 다니는 것을 연상하게 했다. 그녀는 약점투성이의 인간을 사랑하였고 약점투성이 인간의 감정을 사랑하였고 또한 조금은 바보스럽게 살았다.

그녀는 시간에 얽매어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와의 약속이란 늘상 조금씩 틀어지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약속이란 감정적이고 인간

적인 측면의 것이었다.

언젠가 그녀가 학교 입구에서 레인코트를 걸치고 양손을 포켓에 넣은 채 무엇인가 골똘히생각하며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치는나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눈동자를 보아 버리고 말았다. 그녀의 예지에 찬 눈을.

그녀는 열심히 습작했다.

나는 그녀의 작품을 읽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당신의 팬이야

—딴은 세계에서 유일한 팬이군요.

—무슨 상관이란. 다수면 어떻게 하나면 어떻구.

그녀의 예지에 찬 눈이 웃고 있었다.

또한 나는 그녀의 팬이기를 원했다.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

만남이란 그런 것 아닐까? 서로의 팬이 되어 주면 그 뿐인 것이다. 진정한 만남이란 보다 맹목적이여야 한다. 맹목적이란 조건없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만남이란 생활과 존재를 같이 하는 것이다. 생활만을 만나는 만남은 미래가 없다. 의식주의 해결이 목적인 만남은 이미 우리의 선조가 때때로 살아 왔던 만남이다.

우리는 보다 더 울러서야 한다. 리차드 버트 작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 리빙스톤 시골은 물고기 대가리 만을 찾는 생을 과감히 탈피하고 어떻게 날 것인가 라는 문제에 집착한다. 높이 상승하는 갈매기가 더 멀리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존재만의 만남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저 무작정 활강의 의미만을 캐는 갈매기와도 같다. 탐구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미래있는 삶의 방식이나, 생활을 무시한 나머지 생명을 무모하게 버린다면 그런 존재의 삶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나는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생활과 존재와의 결합을 그러나 현실은 생활과 존재를 서로메어내려고 한다. 그것은 정말 거센 힘이다.

생활을 위해서는 돈벌이를 존재를 위해서는 예술! 나는 이 말을 되뇌이고 다시한번 읊미해 본다.

남녀간의 만남이란 생활과 존재가 합치된 매듭이어야 한다.

영혼의 만남이란 이런 삶에서만 가능하다. 영혼의 만남이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되는 것인 것이다.

영혼이란 꿈과 미래가 살아있는 사람의 정신이다. 영혼이란 늙는 개념이 아니다. 영혼이란 영원한 젊음인 것이다.

영혼의 만남—나는 이런 만남을 원한다.



<신간 안내>

體育記者 10年

지난 10여년 동안 조선일보의 체육부기자로 활약해 온 박갑철씨가 병상에서 「體育記者 10年」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다.

씨는 태권도 고단자이기도 하며, 아이스하키 등 직접 체육선수 생활도 했었다. 그리하여 체육부 기자생활을 해오는 동안 수많은 국내외의 경기를 취재하고 체육계 인사들 및 선수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기자이며 체육인의 센스로 소화, 한국체육의 70年代 史를 다각적으로 정리하여 한 곳에 묶은 것이다.

제 1부는 「體育진흥을 위한 提言」

제 2부는 「그라운드따라 10년」

제 3부는 「체육계의 주역들」

제 4부는 「여로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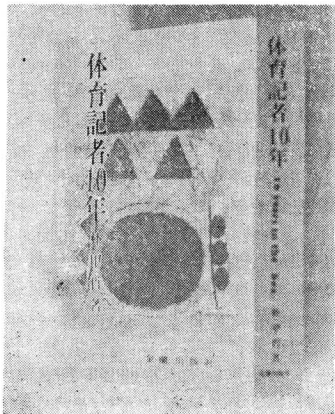
인테 씨는 여기에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지적하거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라운드 주변의 에피소드, 한국체육계를 움직여온 인사들과 스타플레이어들의 면모 해외 견문에서 얻은 것 등 여러가지 내용을 담고있다.

그중 세계 태권도 대회와 유럽 미주 아프리카에 보급된 태권도의 상황을 세밀히 분석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제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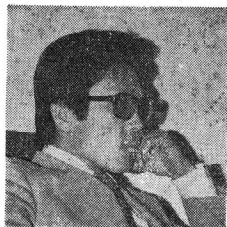
세계태권도대회를 취재한 문장 중엔 선수들의 기술 실력에 따른 위력과 외국선수의 비교에서 보이는 취약점 등을 언급했고 경기의 진행중 심판과 판정에 대해서 그리고 나아가 한국 선수들의 대화와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의 시급함을 말했다.

이 책이 갖추고 있는 한국체육계의 10년사와 변화는 신변잡지의 단순한 산문의 영역을 넘어 그 의의가 깊다 하겠다.

<金蘭出版社 가격 2,000원>



녹슬은 금메달



김 건 중

황관장!

그가 그 우람한 체격으로 후진육성의 꿈을 안고 S시에 태권도장을 개관한지도 10년이 흘렀다.

개관 당시만 해도 황관장의 태권도장은 창고인지 무허가 건물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허술하고 초라하여 황관장이 별 불일 없어 보였는데, 어찌 어찌해서 후원회니 이사회니 별별 구실을 다 붙여 도장 부흥(?)에 힘쓰려니, —물론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였지만—이젠 아담한 40여명의 단종건물을 짓고 100여명이 넘는 관원을 수련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과는 관이하게도 명예육에 눈이 어두워 지더니 사교하는 방식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일만 해도 그렇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번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보리라는 생각을 그는 갖고 있었다.

물론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참으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황관장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빈번번쩍 빛나는 금메달이 주는 광채와 환호성에 도취된 허세가 문제였다.

궁여지책으로 H체육관의 선수를 빌리자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졌다. 허긴 지금 벽에 걸려져 있는 금메달 하나도 H체육관의 선수를 빌려

서, 따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금메달은 이제 빛이 바래고 그 환호성이 아득하게 잊혀져 가고 있었으니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사무실 회전 의자에 앉아서 빛바랜 금메달을 응시하던 황관장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빙그레웃더니 윤사범을 불렀다.

「윤사범, 내 서울 H체육관에 다녀올테니 잘 좀 뒤라구……」

「H체육관은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문을 몰라하며 의아스럽게 반문하자,

「이거 보라구 이제 일주일 남았어」

황관장은 윤사범에게 대회일정이 적힌 협회사업계획서를 쓱 내밀며 빛바랜 금메달을 한손으로 가르키고 있었다.

「네에…… 관장님 그런데 이번은 어느 체육관에 가서 선수를 빌리죠?」

「빌리다니? 그 다 우리 친구제자니까 마찬가지라구」

계면적음을 애써 얼버무리고는 바빠 체육관을 나서는 황관장은 몇 년 전에도 신세진바 있는 H체육관을 향해 서둘러 도장문을 나섰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관장은 굽신거렸다.

「자네도 10년이 되었으면 그만한 선수는 배출할 수 있을 텐데……. 이번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

뒤통수를 긁적거릴 뿐 답변이 공허진 그는 오관장을 이끌고 “유포피아” 짜뚱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실 오관장이 아니었던들 금메달은 커녕 동메달조차 구경 못했을 황관장이다.

수년 전 선수를 빌려서 금메달을 하나 맛본후 다시금 금메달의 번적거림을 맛볼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 흠뻑 젖어 있는 것이다.

유포피아의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요란한 음악 소리가 귓전을 후비고 조명이 산란히 번적이고 있었다.

오관장이 따른 매주 한 컵을 단숨에 비운 황관장은 오관장에게 주머니 받거나 해가며 빈병이 늘어진 것 만큼이나 거나하게 취했다.

둘은 신변 얘기 혹은 국기원 심사 얘기 도장 운영에 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더니 다시 또 조합 얘기로 화제가 옮겨졌다.

「오관장님, 솔직히 제 재주로는 메달감 선수를 배출 못하겠습니다. 관원은 '그런대로 많은데 시험합격이 없으니 옆의 체육관에 요즘들어 관원을 빼앗기고 있으니 이거 큰일났습니다」 몸이 화끈하게 달아서 취기 오른 얼굴에 더운 열을 내며 실토하고 있었다.

「그 뭐 금메달이 꼭 중요한 문제가 아닐텐데……」

오관장의 여유있는 답변에 황관장은 영문올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만 가우뚱하더니 반쯤 비운 잔을 훌쩍 마시며

「문제가 안되다뇨? 어떻게든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야지, 새로 생기기 얼마 안되는 도장에서도 금메달을 따는데……」

다시 또 열변을 토하는 황관장이다.

「황관장! 금메달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냐. 평소의 수련과정에 따른 결과가 좋아서 얻어지는 순조로운 것이어야 녹슬지 않는 메달이 아닐까?」

「휴! 선배님, 제 체면 좀 살려 주십시오. 열

스추어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나긋나긋하게 움직이며 H체육관 오관장에게 굽실대는 것이다. 의 도장은 메달이 수두룩 하고 저희는 없으니부형들한테 체면도 안사고 명색이 10년 된 도장인데……” 아무튼 이번만 선수를 빌려 주십시오」

오관장은 숨도 안쉬고 몰아 붙이며 사정하는 황관장에게 처음과는 달리 툭히 승락을 했다. 다만 「금메달은 녹슬지 않아야 해」 하는 말만을 남길 뿐이었다.

대회는 준결승전에 접어 들었다.

황관장 특유의 어깨와 목에 힘을 주며 흥코너코워석에서 이제 막 2화전경기를 우세하게 치르고 나온 선수에게 음료수로 목을 축여 주며 호쾌해 하고 있었다.

호각 소리와 동시에 주심의 원팔 손가락 셋이 삼지창 모양을 하며 빠르게 하늘로 오르더니 3회전 게임이 시작되었다.

2회전까지 득점은 없었으나 우세한 것을 보아 3회전에서는 득점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득점은커녕 주먹으로 얼굴을 쳐 주심으로 부터 감점선언이 싸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다시 또 득점하리라는 기대에 긴장을 풀으려 애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세에 몰리기 시작 하더니 청코너 선수의 도끼발이 얼굴에 내려 찍히며 힘없이 뒤로 쏠려 나자빠지는 것이었다.

황관장의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진땀이 잔뜩 배어있고 힘주었던 목과 어깨는 축 쳐지기 시작했다.

떨려오는 전신과 숨가쁘게 뛰는 가슴을 수습하기에 바빴다.

국기원 천정의 철재 앙구르가 얼기설기 엉켜지는 착각과 천정이 더더욱 드높게만 보이는 황관장이었다.

드디어 청코너 선수의 손이 주심의 손과 함께 번쩍 올라갔다.

꿀먹은 빙어리가 되어 터덜터덜 흥코너코워석을 풀러나오는 황관장은 갑자기 질긴 동아줄이 온몸에 칭칭 감기며 답답해움을 느꼈다.

시강입구 개천가 포장마차에서 가뜰이나 취한 메다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벌컥벌컥 마셨다.

뒤쪽거리는 걸음이 이내 휘젓기 시작했다. 한 손에는 반쯤은 찢어진 경기 대진표와 소주병 뚜껑이 꼭 쥐어져 있었다.

가까스로 도장 현관에 다달았으나 도장 안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장 현관 앞 계단에 힘없이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언제 발견했는지 윤사범이 달려 나왔다.

「관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손에 쥔 건 병동경 아닙니까?」

「병뚜껑? 왜? 메달이 아니라 실망 해었니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흥얼거리는 황관장을 윤사범이 부축이며

「관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깨에, 깨졌어!」

황관장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쳤으나 웬지 목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음성이다.

「원 관장님두 시험인데 그럴 수도 있죠」

황관장은 윤사범이 지껄이는 말에는 아랑곳없이 오관장의 (금메달은 녹슬지 않아야 해) 하며 의미 심장하게 말하는 순간의 그 표정과 음성이 수 많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머릿속에 꽂히는 것만 같았다.

「금...에...달은 녹이슬지 않아야 해」

혀꼬라진소리로 중얼거리며 머리에 박힌 화살을 뽑으려 안간힘 썼다.

(내가 내가 잘못 생각했지) 황관장은 머리에 박힌 화살이 하나 하나 빠지는 걸 느끼는 순간 갑자기 오관장이 캐히 선수를 빌려준때 수궁이가는듯 했다.

H체육관 선수를 빌려서 떠다 걸어 놓은 금메달을 쳐다 봤다.

도금 올린 것이 벗겨지고 녹이 슬어있는 것이 보기 흉하게만 보였고 자신을 우롱하는 것만 같았다.

「윤사범! 저 저 금메달 내버리라우」

개거품을 뿜으며 소리치는 황관장은 제풀에 폭 꼬부라졌다. 이내 윤사범은 멀건히 황관장이 매어 버리라는 녹슬은 금메달을 멍하니 응시한편, 선뜻 메달을 떼지 못하고 망부석처럼 우뚝하니 서 있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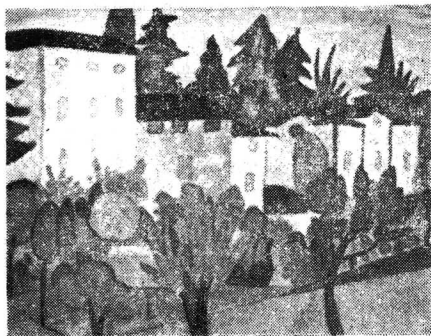
“태극기 앞에 서면”

신 양 우
(태호문상원도장 사범)

흰 도복에 검은 띠를 매고
태극기 앞에 서면
총괄 앞에서만 만세를 부르던
선일들이 생각난다.

피빛 울음 소리를
검은 띠에 얹어 매어
불끈 치솟는 감정의 소리까지
삼켜 버리고.....
지그시 되짚는
자고의 인내는
멍그런히 남아
그 모든 소리를
털어버리게 한다.

태극기 앞에 서면
약동하는 삶과
또한
선열의 후예라는 긍지를
새삼 느낀다.



離 別 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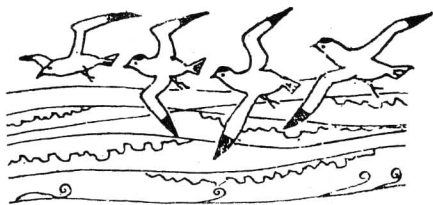
李 景 淑

안녕 눈감은 사람
우리는 늘 떠나야 했네
바람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것이 아닌 실체들을 남겨놓고
다만 머무를 수 없어
호르는 것들만이 가야했네

안녕 말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 샘처럼 솟아나는
그처럼 많은 말을 담을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
조용히 와서 말없이 떠나가는 그들이지만
또한 얼마나 많은 말을 남기고 가는 것일까?
그들은

머나먼 길, 창너머 나무가지 끝에서도
길은 보인다네
웃내리는 꽃상어 하나가 그 길을 힘없이 따라
나선 것도

잘 손질된 꽃들은
쏟아지는 햇발에 제 머리칼을 말리며 가고
시방 속으로 깊숙히 잤아드는 한여름의 땀방울
누구나 가지코 가는 외로운 눈물
우리는 우리는 가야하네
조용히 일어서서 낡은 신발의 남은 흙을 털고
형클어진 머리칼 빚으며
늘 떠나가는 눈들
혹은 준비가 끝난 하늘 위를
숨죽이며 넘겨다보는 얼굴들
우리는, 우리는 알아야 하네
어떻게 조용히 잠드는가를



詩

6月の 들판에서

김 미 경

절레꽃 널널진 들길을 지나

푸르게 내려깔린

하늘 자락을 밟고

저만큼

자라오른 태권의 함성을...

질은 에코로 번지는

향내를 맡는다.

바꿈의 고개를 든 햇살에 취해

절레꽃 향을 토할 때

나의 눈은 부시다.

파랗게 감겨온다.

얍!

수필

運動과 精神의 相關

尹 湧 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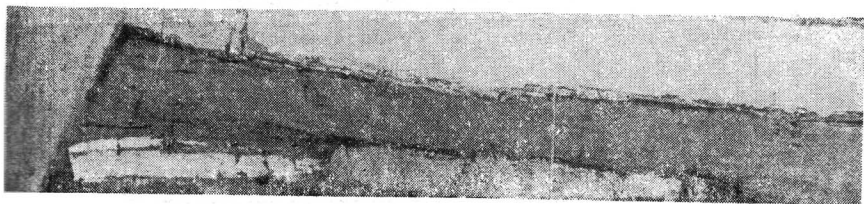
(조선대 보목공학과)

人間的 內面的인 苦衷은 現實의 環境탓이 아니라
나의 지난 一年間의 生活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國技인 태권도를 시작한 動機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高校三年 時節 졸업直前에 태권도와
접할 기회를 가졌었던 것 같다. 남달리 빈약한
體具를 意識하던 나 自信은 항상 優越感을 느낄
만한 무엇 한가지를 해야겠다는 生覺을 갖고 있

던 터였다. 인연치고는 이상한 인연으로 도장에
入館 하게 되어서 運動은 시작되었다. 그뒤 大
學試驗의 낙방이란 두글자를 되씹으며 세수生活
을 했고, 人生의 새로운 맛을 느끼는 쓰디쓴 고
매의 날들이었다.

아울러 항상 心中의 욕구를 폭발할 수 없는
그때의 心情은 더욱 운동에 전념하려 했다. 아
침 5시 30부터 시작하는 운동은 새벽의 기압소
리와 함께 나의 쌓여진 고증을 날려버리고 백과
함께 나의 욕구를 폭발 시켰다. 精神의인 성숙
과 아울러 남들에 대한 우월감을 인식하게 하는
1시간 30분가량의 운동은 나를 새로운 人間形으
로 만들수 있는 動機가 되었다고 나 自信은 돌
이키고 싶다.

한때 갈피를 잃어 工夫를 등한시 했던 나의
재수생활의 촛점을 세워준 태권도의 신비스런
가치에 대해 다시한번 경건함을 표하고 싶은 따
름이다. 人生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누구나다 파
란만장한 굴절이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 봐 왔다
자기의 目標을 세워들만한 일의 수행에 있어서
精神의 使用 역시 중요 하겠지만, 자기의 心情
을 발산할 수 있는 運動을 권장하고 싶고 運動
과 精神의 合致에서 태도를 확고히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나의 생각이다.
이제 大學이란 관문을 통과한 나로서는 자신의
실력보다는 나를 일깨워준 태권도의 정신과 인
격도야를 生命으로 삼고 있는 도장에 대해 세삼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
배이하 모든 태권도인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나
의 心情은 運動에 앞서 精神의 올바른 방향이
몹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따름이다.
그리고 새로운 자아의 형성 정신력의 확대 人間
性的의 올바른 창달을 위한 생활영위를 태권도와
아울러 지켜줘 나갔으면 하는 한 태권도인의 바
램이다.



대통령하사기 정발
제14회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선수권대회

— The 14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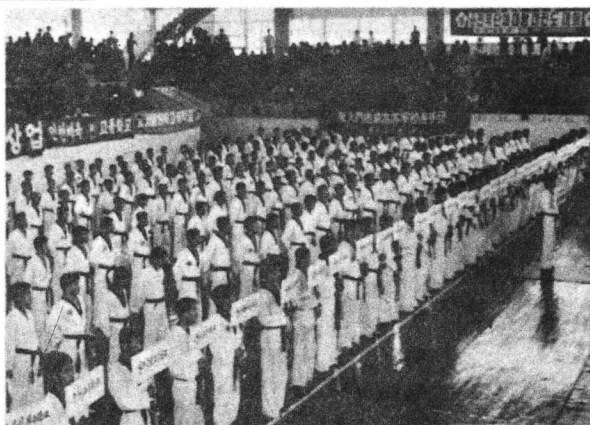


김운용대회장의 개회사 광경

Opening address by Dr. Un Yong, KIM, President of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d World Taekwondo Federation.

일반부 16팀 학생부 27팀이
출전한 입장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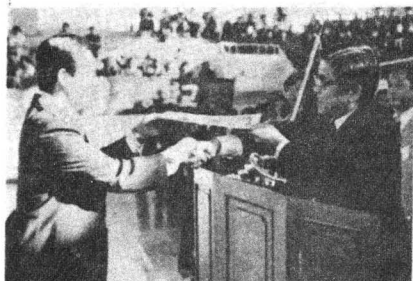
The opening ceremony which
was participated by 16 ge-
neral teams and 27 students
teams.



경기스냅

Scene of the competition.





일반부 우승팀 시상광경
President KIM awards championship certificate to the winning team.

일반부 단체 우승을
차지한 육군원호단팀

ROKA team took
the championship in
the general division.



고등부의 단체 우승
을 차지한 성동상권팀

Champion in high
school division Seong
Dong Commercial high
school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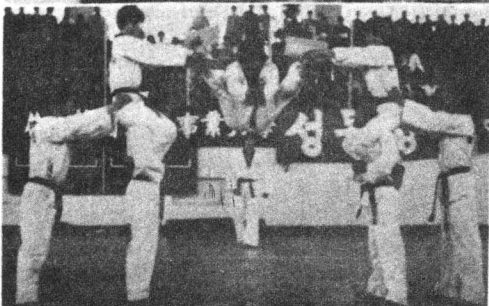


PATA 총회 각국임원들 국가원 방문
WELCOME PATA DELEG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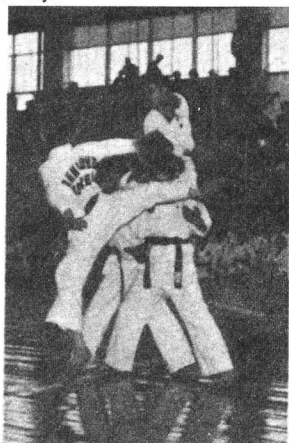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있는
PATA 총회에 참석한 각국의 임
원들

PATA delegates visited Kuki-
won and watched Taekwondo
Demonstration by Midong primary
school boys.



한국태권도시범단이 보여주는 양발차기의 격파력
A scissors' kick is being executed by a member of
National Demonstration t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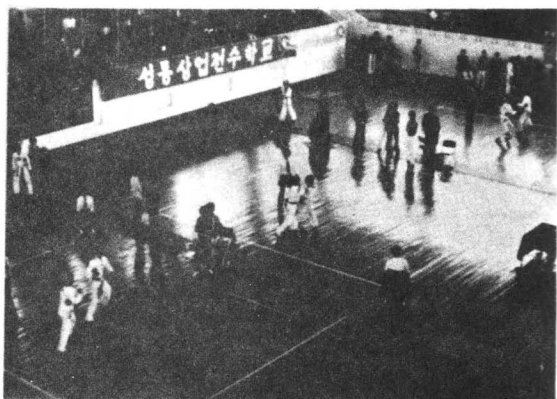


미동국민학교 태권도시범단의 회
전 뒤돌아 옆차기.
A boy performer launches
a turning side kick.



신인선수권대회에 입장한 선수들.
Contestants line up 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ew face' national championships

경기가 진행중인 경기장 전경
A scene of the national championships.



한국여성태권도연맹 결성식에 참석한 발기인들

The charter members of the Korean Women's Taekwondo Federation.

한국 여성 태권도시범단의 격파시범

The demonstration by the Korean Women's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폴란드의 코나르스키씨는 국기원으로 김운용총재를 방문하고 유럽전역의 태권도 보급화에 대해 의논했다.

Mr. Konarsky, a member of the Polish Taekwondo Asso, presents a pennant to Pres. KIM at Kukkiwon.

김운용 회장은 마리오크레마 이태리 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Pres. KIM presents an appreciation plaque to Italian Ambassador M. Crema.



이진영 삼군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김운용회장

Pres. KIM present Plaque of appreciation to Gen. Konyong Lee, Commanding General of ROKA



호주의 스포츠장관인 케시씨가 국기원으로 김운용총재를 방문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Pres. KIM receiving appreciation plaque from Australian Minister Casey.





폴란드의 코나르스키씨는 국기원으로 김운용총재를 방문하고 유럽전역의 태권도 보급화에 대해 의논했다.

Mr. Konarsky, a member of the Polish Taekwondo Asso, presents a pennant to Pres. KIM at Kukkiwon.

김운용 회장은 마리오크레마 이태리 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Pres. KIM presents an appreciation plaque to Italian Ambassador M. Crema.

이건영 삼군사령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김운용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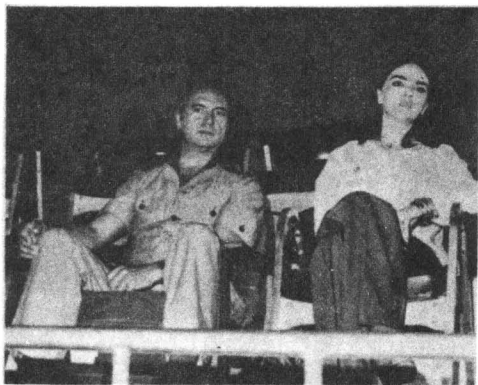
Pres. KIM present Plaque of appreciation to Gen. Konyong Lee, Commanding General of ROKA



호주의 스포츠장관인 케이스씨가 국기원으로 김운용총재를 방문 감사패를 전하고 있다.

Pres. KIM receiving appreciation plaque from Australian Minister Casey.





멕시코의 퀘테타로 주지사인 안토니오 칼자다씨가 국기원을 방문 김운용총재로부터 명예단증을 받고 태권도시범을 관람

Mr. & Mrs. Calzada, Governor of Qurettaro of Mexico, watches Taekwondo demonstration during his visit to Kukiwon.

제4회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전 Korean National team selection tournament for the 4th World TKD championships



경기스냅
Scene of the competition



세계대회에 파견될 대표선수들.
Ten selections to represent the
Korean Nat'l Team for the 4th
World TKD Championships

대한국제 초청 태권도대회
 파견 한국 여자대표 선수
 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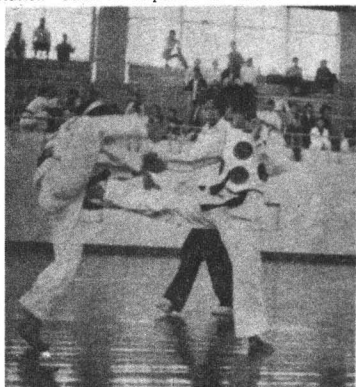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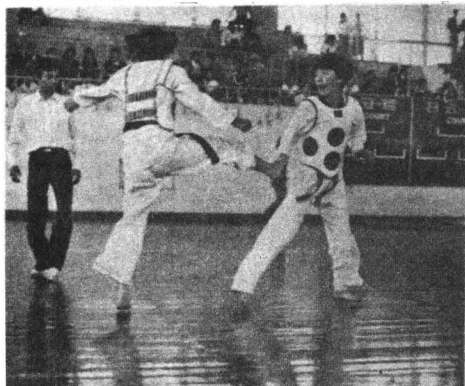
Selection tournament for
 the International TKD
 Invitation Game.



국제초청선수권대회에 파견될 한국여자대표팀
 Korean women's team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Invitation Game in Republic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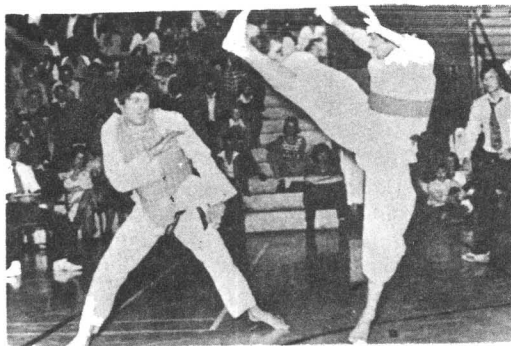
경기스네

Scene of the compet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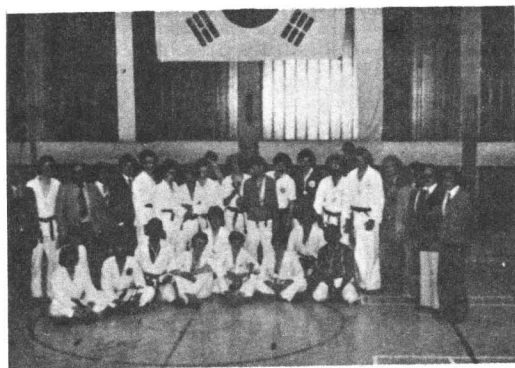


대만 국제초청경기 파견 한국
 남자대표팀.

Korean National team for the
 International Taekwondo Inviat-
 ion G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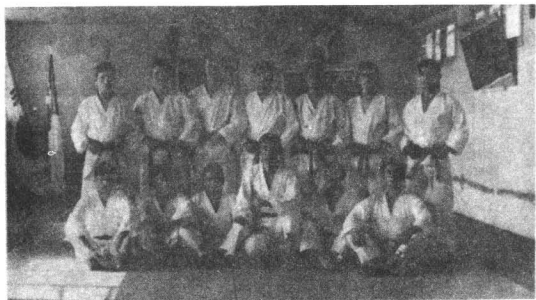
유럽 4개국 친선대회의 경기장면
A scene of competition at the European Nations
Goodwill TKD Championship among 4 n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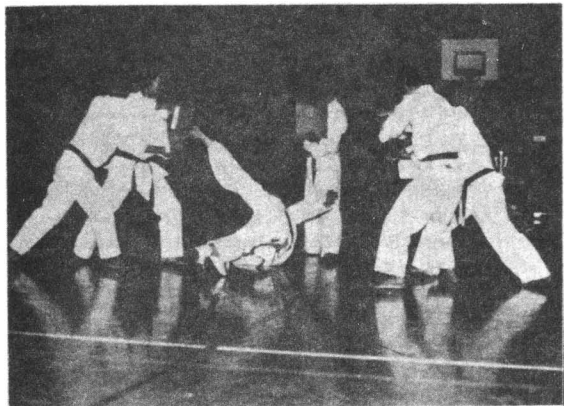
유럽친선대회의 입상자들
Prize winners of the European Goodwill Champ.

콜롬비아 태권도협회 전국심사실시 후의 기념촬영
Colombian practitioners pose after promotion
test in Colom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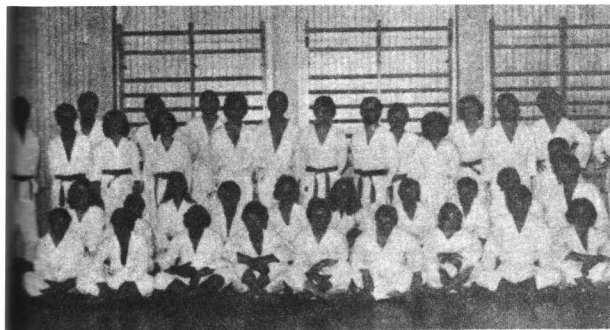




칠레 육군보병학교 태권도 교관반
Taekwondo training instructors of the Chilean
Army Infantry School.



인스브르크 스포츠대학의 태권도 수강생들.
Taekwondo students of the Universitäts-
sportinstitut in Innsbruck



서독의 김남수사범
이 태권도 시범을 하
고 있다.

Instructor Kim Na-
m Soo training his
students at his Gym.
in Germany.